朝鮮日報
夕刊 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侵略事實을指摘코 聯盟의背信을痛擊

規約尊重은말뿐、에國滅亡을傍觀

에國皇帝의歷史的大演說

歷史的인國際聯盟緊急總會

●●●●에國皇帝演說을伊新聞記者團妨害騷動

【쥬네브卅日發同盟】 緊急聯盟總會는 卅日午後三時 聯盟五十餘國代表出席下에 쥬네브市會議事堂에서 開會되엿다 全世界의觀聽을 一身에모흐고잇는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가 『에디오피아首席代表』로自身總會에出席한다고함으로 議事堂附近은 定刻前부터 人山人海를이루엇는데 에디오피아代表라스·나십氏가 出席한外 마친내定刻까지 皇帝는影姿를나타내이지안허 一時群衆을 失望케하엿다 定刻副議長이든英國外相이開會를宣言하고 베네슈議長이 체코슬로바키아大統領에就任한結果辭職을不得已하게되든事情을述하고 同議長으로부터온書翰을 朗讀하엿다 바로그때 一輩의自動車가 議事堂玄關에到着하자 黑色衣裳을몸에두른 에디오피아皇帝가 從者二名을거느리고 議場에入하야 고요히 에디오피아代表席에 着席하엿다 다음에議事手續을希議한後 議長選擧를 執行한바 白耳義代表방질랑首相이 四十七票對 四票의壓倒的多數로써 當選即時 議長席에올나 인사를述한後 伊太利政府의覺書를 朗讀하엿다 右覺書에잇서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殖民地에 事實上委任統治를 受諾할意向을表明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國民의 傳統風俗等에基하야 精神的物質的 文化의進展을 企圖하기를 玆에誓約한다 이미 에디오피아 總督으로 하여금 새로운 統治 組織을 確立케하고 着着 行政事務의 刷新에 當하여잇는데 國內 統治에 對하여는 特히 顧問制度에依하야 土民의 意思를充分尊重할터이다 그리고 伊太利政府는 殖民地政策及 殖民地의 防衛에必要한以外 土民을 强制徵募치안는 原則을遵守하기를 不吝한다 그리고 에디오피아國의 門戶를 封鎖치안코 各國에 通信通行의 自由를 保障하야 公正한 待遇를 與하도록 特殊한 手段을 講究할터이다 伊太利政府는親히 聯盟과協力을拒否하나 唯獨 歐洲뿐만아니라 世界의 運命을 決定할 重要懸案이繼續發生하는 現狀에鑑하야 이懸案解決에努力할 意思가 잇슴을 이에闡明한다 더욱 聯盟의現在機構를 改正하지안흐면 안될것은 各國政府가 이미承認하는바로 伊太利는 聯盟改造에協力할 方針인데 爲先 國際的協力實現을 阻害하는一切의障碍를 撤回하도록 特히 聯盟總會에對하야 要望한다 다음에 亞爾然丁代表간데로 大使가登壇하야 聯盟總會를 招集한理由를 詳細說明하고 事情如何에依하여는 亞爾然丁政府는 聯盟을 脫退할수박게 업다는旨를 示唆하엿다 亞爾然丁代表의演說이終了되자 방질랑議長은『하일레·셀라시에皇帝陛下』하면서皇帝에게 發言을促하엿다 때午後六時四十分 皇帝는代表席에서 悲痛한面貌로 沈着하고도凜凜한氣魄을示하며 土語로써祖國擁護演說을 開始하매 突然伊太利人新聞記者團席으로부터 떠들기始作하야 회파람을불며 議事妨害를 策하엿다 各國代表는 伊太利人新聞記者團의 暴狀에 憤慨하야 議場은 이때문에 一時騷然한狀態에 陷하엿다 방질랑議長은 即時 妨害新聞記者團의退場을 命令하매 聯盟史上처음護衛가 出動하야 小衝突을 演出한後 겨우그들을 場外로 拉致하엿다 議長이 平靜하여지매 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沈着하게 爲先 紛爭開始以來의 悲痛한心境을 披瀝하야 가로되 余는 聯盟이 그規約을 履行할줄로 確信하고『暴力』은 結局에잇서 『正義』아페 屈服하리라고 確信하고잇는바이다。 伊太利空軍은 幾百噸인지 모르는 이베리트 其他의 殘虐한 彈을 投下하야 數萬의 無辜한 人民及 多數의 家畜을 殺戮하엿다 그러데 國際聯盟은 伊太利軍의 이非人道的暴擧에 對하야 如何한 措置를 講究하엿는가 余가 總會에 出席한것은 實로 이伊太利의 暴擧에 對한 各國代表의 考慮를 要請함에 不外하다 皇帝의 演說은 매디매디 肺腑를 찔러 各國의 無責任한 態度를 指摘하고 다시 말을이어 나 法律的手續에 荏苒時日을 空費하는동안에 伊太利政府는着着軍事行動準備를 進捗하야마친내 一九三五年十月七日에 에디오피아帝國을 侵略하엿다이 歷然한 事實아페서 各國은如何한 行動을 取하엿든가 各國 代表는 聯盟規約의 義務를 입으로 提言하면서 規約을 履行하게되면 무슨 禍를 꾸며 難色을 表示하야 結局 規約을 履行케하는 一切의 手段을 업세엿다 特히 某某聯盟國의 態度에對하여는 憤慨를禁할수업다 聯盟各國은 마친내 에디오피아의滅亡을傍觀하엿다 余는에디오피아國民과함께 聯盟의五十二個國政府가 일즉約束한 에디오피아에 對한支持를 此際 提供하기를 要請한다 我等은 國際條約의 尊重을 確保한다 皇帝의歷史的演說은 前後三十分間에亘하야 繼續되엿는데 皇帝는滿場의 急雷과如한 拍手를바드면서 고요히 降壇하야 代表席에 着席하엿다 第一日의會議는 이것으로 終了하고午後八時五十分散會七月一日午前十時부터繼續開會할豫定이다(寫眞은 에皇帝)

唐氏西南派買收失敗

【廣東三十日發同盟】 唐生智氏는 蔣介石氏의 命令으로 二十五日 香港에到着하야 粵漢鐵道問題와西南軍幹部의 買收工作을 進行하고잇든바 突然 陳濟棠首腦部에 發覺되여 身邊의危險을 感하고 二十九日 香港發 伊太利船으로 上海에向하야 逃避하엿다

話題新說 火의十字團

◇ 人民戰線內閣에依하야 解散命令을바든、佛國의四딱시스트團體中에가장 組織力이强하고 團員이만흔火의十字團(Croix de feu)의 首領드·라록大佐는 이번에 解散된 딱시스트는 社會黨으로 再組織하야 新프랑스社會黨을組織할것을 宣言하여 또다시 人民戰線內閣의압길에 一沫의不安을 던지고잇다。火의十字團은 退役軍人과退職官吏等을中心으로하야 一九二三年頃에組織된 軍隊的딱쇼團體로、그團員은、그團의政治的目標를向하야 强硬行動을 取할때에는 언제나 强力한軍事團體로서의 役割을 할수잇도록訓練되고、또武器는 銃、機關銃外에 飛行機까지 가지고잇서 巴里占領計畫의 想定演習까지 하엿다고 傳說되여잇다。

◇ 그러나 人民戰線內閣成立에 解散命令을 밧고도 아즉 이러타할 反抗行動을 取치못한것을보면 依賴하는바의 實力은 업는모양이다。佛國에잇서서는 그總選擧結果를보건대 國民의 大多數가 斷然的으로 左派를 支持하고 딱시스트를 排斥하는傾向을 보혀쓸으로 딱시스트團體가 設使 軍隊的實力이잇다할지라도、强硬行動을 取하는것은 도리혀 人心을 離反하는 結果를 招來케될것이다、딱시스트에 對한 一部 資本家의支持가、人民戰線內閣政府의 左翼化에 따러서는一層强化될것도 豫想되지만은 現在의佛蘭西의 事態는 獨逸、伊太利의 過去經驗과는逆行하는것이事實인듯하다。火의十字團의 首領 드·라록大佐가 딱시스트團體를 新프랑스社會黨으로 改編하려는것도 이러한情勢의 反映이라할것이다。

에國植民工作成功 伊政府서强調

【羅馬三十日發同盟】 伊太利政府는 三十日聯盟總會開會를 압두고 에디오피아에잇서서 文化施設의 發展情況을 發表하야 아디스아베바陷落後二個月間에 伊太利政府의 植民工作의 成功을强

一、아디스아베바 陷落이겨우一個月에지나지못하야 에디오피아全國에잇서町이라일홈할수잇는町은 全部郵便局을 設置할수잇게되엿다

一、아디스아베바、아스마라間敷設의 電話가完成되고 電信電話가通하는外에 航空郵便旅客飛行을 實施하엿다

一、에디오피아 國立銀行은 一夜에設立되고 營業을 擴大하고잇다

人事·集會

◀故閔泳徽氏追悼式 三日午後五時 徽文高普講堂에서擧行

八面鋒

◇ 制裁는撤回하고 併合은默認하고、弱少國의主張은 우물주물 默殺하자는것이 聯盟總會의空氣。

◇ 게다가、[illegible] 자는 [illegible]이잇스나 [illegible]의處가아닐가。

◇ 軍事借款이니 密約成立이니 世界의 注目은 獨中關係에 集中。

◇ 남의눈에 티를보기爲하야 自己눈아페 기동나무를 보지못하는것이 世人의常習이라든가。

◇ 英國의 大增艦計畫은 軍縮條約崩壞에拍車를加할것이라고。

◇ 아즉도、묻어지다가남은 條約이 잇다는말이지。

本社辭令

命校正部長(七月一日附) 校正部長代理 金貫龍

英首相近日掛冠

對伊獨外交로非難만흔此際 下院에出席안코蟄居

【倫敦三十日發同盟】 英國首相볼드윈氏는 前週初 別莊에赴한後 倫敦에歸還치안코 下院에도 出席치안헛다 確聞하면 자못强度의神經衰弱氣味가잇고 더욱不眠症이昂騰된 模樣인데 今週中은 아마 倫敦歸還은 困難하리라고 觀測되다 政府의對伊 對獨 外交工作方針에對하야 各方面으로부터 非難의소래가노픈此際 볼드윈首相도 此를 機로近近挂冠 決意를鞏固히 하지안흘가觀測되다

警察部長會議第三日

各道警察部長會議最終日은 一日午前九時로부터 開會되야 警務局關係의 軍要秘密事項指示、注意、報告는 前日로써 終了되엿슴으로 他局의 警務關係事項에 移하야 總督府各局및 遞信、專賣、鐵道各局의指示、注意、意見希望、各事項에 對하야 各局長이 順序로說明하고 最後에佐枝軍參謀長으로부터 軍警一致하야 半島治安確立에 協力하자는 希望을述하고 軍事施設乃至國家總動員遂行上의 軍要事項、國境警備其他時局에處할 諸種의 指示注意等의 陳述을終了하야 再次警務局關係의 協議事項審理에入하고 非常時에處할 警察網의擴充을爲始하야

一、宗敎類似團體의 整理廳正具體案에關한件

二、道에잇서서의 例規의整理 報告의簡易化立案에 關한件

三、共濟組合員의 肺結核療養及豫防對策에 關한件

等을中心으로 愼重協議한後 다시事務協議를 遂하야 會議는午後도 繼行、이리하야 三日間에亘한 會議는 田中警務局長統裁의緊張裡에完了되엿다

庶政一新優先國策 七項目으로限定

國防、電力、燃料、農業保險、增稅、航空、保健

首相과藏相熟議結果

【東京電】 現內閣의 根本方針인 庶政一新에基한 主要國策을 先決할 三日閣議를 압두고 無慮數十項에達하는 國策氾濫으로苦慮하는政府는 數日來 吉田調查局長官을 中心으로 廣沼書記官長 次田法制局長官을 加하야此等國策中에서 如何한 經綸을 適切且重要한國策으로 採擇할것이나에對하야 愼重協議한結果 政黨出身閣僚에 多少不滿하는비치잇스나 各省割據主義를 排擊하고 먼저 國防及廣義國防의 擴充確立을 主眼으로한 國策을 採用實施하기로大方針을 決定하고 國策을約二十項에 調整하엿스나 다시廣田首相 馬場藏相과도 協議하야 緩急輕重의 再檢討를遂하야

一、全面的國防力의强化 二、電力國營 三、燃料國策(特히石炭液化) 四、農業保險 五、增稅及增稅策 六、航空國策(特히航空機生産能力增進) 七、保健國策

等七項目에 限定하고 各閣僚의 一致協力에依하야 萬難을 排除하고 그實現에 邁進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先決될 重要國策의審議는 이에伴하는 豫算概算도提示키로되여잇슴으로 三日定例閣議에 繼續하야 連日臨時閣議를 開하고 國策決定을 急히하게 될수잇는대로 十日定例閣議까지에 大體로 具體化식혀 八月十日豫算閣議까지에 實質的討議에 올마 具體案을 決定하야 大藏省主計局으로 移牒키로되여잇는데 右重要項目에서 빠진政策은 各省으로부터 直接主計局에 提出하야 例年대로 査定을 行할方針이다

國書捧呈키爲해 川越大使南京에

【上海一日發同盟】 川越大使는國書捧呈키爲하야 若杉參事官以下를거느리고 一日午前七時十分上海發 軍艦球磨에搭乘하고 南京에向하야 二日午前十一時 南京에到着할 豫定인데 同日夕刻五時 外交部長張群氏와會見한後 國民政府主席林森氏에게 國書를 捧呈할 豫定이다 그리고 川越大使는 六日頃까지 南京에滯在할터인데 國民政府側은 十日에開催하는 二中全會를압두고 對西南工作及 內政改正에沒頭하고잇슴으로 蔣介石氏와의會見은 行하지안흘模樣이다

兩廣軍政首腦部 對中央策協議

西南獨立近日實現乎

【廣東三十日發同盟】 陳濟棠 李宗仁等의 兩廣軍最高幹部는 三十日午前十時構花齋의 陳氏公館에서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前線의戰況을 報告하고 約二時間作戰計畫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午後五時부터 다시 軍政兩會의首腦者를 網羅한擴大會議를 召集하엿다 前後二回에 亘한今日의會議는 軍政兩問題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重要檢討를 加한것이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南當局의 見解를 綜合하면 現在江西湖南兩省에잇서 中央軍과 粵桂軍衝突은 漸次全線으로 擴大되는傾向이 잇다는바 七月十日의 二中全會開會를 待하지안코 福建 江西 湖南 貴州四省에亘한 南北兩軍의 全面的大衝突에까지 發展하리라고 觀測되는바 一方으로 組織大綱을 決定한 西南獨立政府는 意外로速히 實現되지안흘가 觀測된다 그리고 廣西要人談에 依하면 表面的으로도 아즉 發表되지안호나 兩廣軍總司令部는 二十五日事實上 成立되여 廣東의 組織統一은 統制下에잇서 各戰線의 連絡統一에 萬般遺憾업기를 期하고잇다

廣西軍、豐慶占領

中央軍의後方遮斷作戰

【廣東一日發同盟】 廣西軍當局發表에依하면 廣西軍部隊는 三十日朝 豐慶을 完全占領하엿다同地中央軍 徐源泉部隊는 僅少의 抵抗을 試하엿을뿐으로 新化方面에後退하엿다 따라 廣西軍은中央軍第七十七師羅霖軍의 反亂部隊를 收容한氣勢를 乘하야 湘潭으로 進擊을 繼續中이다 廣西軍主力의 左翼은 豐慶에서同地로부터 湘鄕을거처 湘潭을衝擊하야 中央軍의後方을 遮斷하고 衡陽을 孤立에陷케할 作戰이라고 解釋된다 右翼은 祁陽衡陽間에서 大衝突을 이르킬氣勢를보이는바 三十日夕刻 危險하게되엿다는旨의 入電이잇섯다

廣西軍當局 軍事情況發表

【廣東三十日發同盟】 廣西軍當局은 三十日 對中央軍과의 軍事情況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今月二十三日以來 끈침업스므로는 中央軍前線部隊의 挑戰行爲에對하야 廣西第七軍은 二十八日 祁陽을 奪回하고 二十九日 大宮에 進出하야 洪橋方面의 中央軍前線部隊孔令恂의 第九十二師와 交戰中인데 他方 我軍의有力部隊는二十九日豐慶에 進出하야 同地의 中央軍 徐源泉部隊와 交戰中이다

中央反亂軍과 西南軍戰線擴大

【廣東三十日發同盟】 西南當局發表에依하면 二十六日衡州西方에서의 中央軍側反亂部隊第五十一師에對한 第二次爆彈을 端緒로 廣東第一軍(余漢謀軍)과 中央軍前線部隊와의間에 戰端이開始되야 二十七日以來南軍은 上猶一帶에서 交戰中三十日에至하여도 戰鬪繼續中으로 戰線은 漸次擴大될傾向이잇다 第二次爆彈으로 戰死한 反亂部隊의死傷은 三十五名에達하얏다

義務敎育年限延長案 十日閣議에提出

小學校六年制를八年制度로

平生文相의態度決定

【東京電話同盟】 平生文相은 庶政一新의 立場에서 從來學制의 全面的改革을 意圖하고 事務當局을 督勵하야 調查研究中이든바 最近에 이르러 文部當局은 國策으로 義務敎育年限延長案을 七月十日國策審議閣議에 提出하기로하고 그態度를 決定하게되엿다 即右義務敎育年限延長案은 現在의 小學校六年制를 다시二個年延長하야 八個年으로 하야 八個年의 義務敎育을 하는것인데 其骨子는 左와如하고 其他의 中學校制度 靑年學校制度等의 問題는 義務敎育制度改革에 俟하야 妥當한 方法을 考究할方針이다

義務敎育年限延長案

一、義務敎育의 年限은 此를二個年延長하야 從來의 小學校를 八年制로할것

一、延長된 二個年의課目은兒童의公民敎育及職業敎育에置重할것

一、中等學校와의 連絡은 大體小學六年부터 入學함을 得하게하나 그連絡에對하여는 더욱檢討를加할것

一、延長 實施期는 十三年度로하되 十二年度부터 右實施準備로 校舍의增築 敎員의 養成에着手함

平生文相訓示

【東京電話同盟】 平生文相訓示要旨 恐懼하옵께도 今上陛下께압서는 御大典直後 敎育에關한 御諭勅를 下賜하시와 祖宗의 國을 經하매 敎學을 先으로하다고 말삼하신것은 實로 聖慮深遠한 感激한 말삼이다 國家興隆의 淵源은 오직 敎學의 振興에잇다 特히 現下時局에 鑑하야 更始一新을 要함것이 極히 만호나 其中 敎學의 刷新擴充을 國家의 最先의 急務라고 信한다 그리고 其根本은 國體의 本義를 闡明하야 恐懼하옵게도 敎育에 關한 勅語에 明示하신 不易의 大道에 則하야 獨特한 敎學을 確立함에 잇다고 確信하는바이다 國內外의 情勢에 鑑하야 國民敎育의 充實을 圖함은 極히緊要한 問題이다 特히 그擴充進展을圖할國民의 素質向上에致하려고 目下關係部局을 督勵하야 銳意調查를進行하고잇다 學制制度及 敎職員等敎育關係全般에 亘한 强化運動은 最近其効를擧하고도 特히 憂慮하야마지안엇다 學校敎員의 思想事件은 그發生을볼수업는 狀態에 이르게되것은 同慶至極이다 그러나 從來에잇서 此種思想運動의動向에 徵하면 一時의衰退로써 容易히 將來의 樂觀을 不許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最近國家主義運動에 對하야도 深甚留意할必要가 잇다 國家가 町村에義務敎育費國庫負擔臨時補助制度를 設하고 每年多額의 費用을支出하여온것은 小學校敎員의 生活에 安定을與하고 國家興隆의 淵源인 國民敎育의 健全한 發達을 期함에잇는것은 더말할것도업다 昭和十一年度에잇서 臨時補助法이 廢止되엿는데 이에代하야 地方財政補給交附金의一部를 敎員俸給의財源에 充當케하도록한것도 그主旨에잇서서는 何等變化가업다 關係諸員의 努力에依하야 漸次俸給支拂狀況이 良好하게되엿는데 一部地方에서는 遺憾되는點이不少하다 元來敎育은 實生活에 適應케함으로써 그本旨를삼으나 特히 實業敎育은 地方實情에 卽함을必要한다고 信한다 따라敎化內容及 制度에對하야도 充分考慮하야 地方狀況에 依해서는特히 어느程度의 實業敎育에 努力하야써 實業에 堪能한 人物을 多數 養成할必要가잇다고 생각한다 靑年學校는 制度實施以來 極히順調로經過한거러 그基礎도 漸次 安定하게 되엿다 그러나 年齡該當者中의 約半數는 아직未就學狀態임으로 그就學奬勵를 圖할것은 今後에도 努力할必要가잇는點이다 女子靑年敎育에 關하여는 一段努力을 希望하는바이다 體育奬勵主旨는 國民精神을 鍊磨하고 體力을 充實케하야 强固한 身體와鞏固한 精神으로써 協力國結하야 事에當할 人材를養成하는데잇다 今回學校體操敎授要目을 改正하고 또第十二回올림픽招致에關하야 適切한 指導援助를 與하려하는것도 이러한趣旨에서 나오는것이다 國民의健康狀態에鑑하면 死亡率은 자못低下되엿스나 靑少年의體質、症病은 반드시 樂觀을不許하는情勢인데 그根本的改善을策함은 敎育의急務의하나이라고하지안흐면안된다 體育運動의 振興에關하야 一層 適切한 指導를 與하는 同時에 學校衛生全般에亘하야 一旦刷新을 圖하야 國民의健康增進에對하야 努力하기를 切望한다 그러나 敎育界의不祥事件은 그影響하는바가 極히 深刻함으로 그解決에關하여는 指導監督에任한者는 全力을傾注하야 禍根을 芟除하여다 近時其責任잇는者로 往往 法規問題를 惹起하는것은 敎育刷新上으로勿論 吏道振作上 甚히憂慮하야마지안는바이다

各省懸案解決企圖로 閣議提出은遲延

【東京電話同盟】 庶政一新으로標榜하는 廣田內閣은 時代에 順應한 國策을 樹立하고 革新의 實을 擧하기 爲하야 組閣以來 各閣僚를 鞭撻督勵하야 國策提示를 要求하고 六月中에는 各省大臣으로부터 國策을 提出하도록 努力하엿는데 各省에서는 此를 機會로 關係諸懸案을 一擧解決하기爲하야 所謂眞正한國策以外의것까지 來國策審議閣議에 提出하려함으로 各省의國策이 提出되기는 最初豫定인 七月三日보담 遷延하야 結局十日以後에될 模樣이다 따라 三日以後의 閣議에서는 燃料國策及 電力國營等 一、二의國策에對한 所管大臣의 說明이잇는程度에끈치고 國策이 本格的으로 綜合審議되기는 十日 閣議以後라고 觀測된다

春園 李光洙 著

春園最初의 詩와隨筆論文

人生의香氣

高級紙印刷·豪華裝幀·四六版洋裝

定價一圓五十錢 送料二十錢

序文의一節

뜻아니한 文筆生活을 한지 이제二十餘年、어느새에 머리에 센 터럭이 보이게된 오늘、나는 그동안에 내가 지은 詩歌、隨筆中에서 내 스스로 버리기 아깝다는것을 골라서 이『人生의香氣』라는 冊을 만들어 出版하기로한다。내가 내손으로 내글을 모아서 出版하기는이이것처음이다。 淸淨한 良心에 비최어본다면 過去 數十年에 지어온 글을 모도 모아서 태워버리고 시픈것이 眞情이다。내 스스로 내 글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罪惡덩어리인 一塊肉에 不過하거든 내 무슨 조흔 말이 잇서서 敢히 世上을 向하야 웨치랴。四十도 半이 넘고 五十을 바라보는 不惑知命이라야 할 今日에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昨年에랴、十年前에랴、二十年前에랴? 虛人되이 世上의 恩惠속에 衣食과 愛慾을 어드면서 四十五年의 歲月을 살아오고 그동안에 한일이란것이 변변치못한 글과 노래 몃篇 이것이 무슨 報恩이되랴。

重要目次

論文: 젊은朝鮮人의所願 / 念朝鮮 / 發願의動機 / 個人과組織體 / 예朝鮮人의根本道德 / 非常時의非常人

默想錄: 朝鮮人으로의내人生觀 / 어린두벗저 / 조선의희망 / 거지가튼조선사람 / 머리빗겨준즘의日記 / 忍唔

人生의香氣: 사랑 / 손가락 / 어린靈魂 / 연분 / 이즘의나라로

病窓語: 여름달밤 / 朝鮮의하늘 / 離別行進曲 / 死 / 懺悔 / 生命慾과所有慾

詩: 못한자루 / 香爐 / 노래 / 歷史 / 仲秋 / 月

草香錄: 辭夫 / 장가 / 天道敎人 / 길닭이 / 短笛 / 殺鷄白飯

發行所 弘智出版社 京城府弘智町四〇 振替京城三四九四二〇

發賣所 三文社 京城府寬勳町三〇 振替京城九七五六

七月氣象譜

칠월에는 흔히큰물이 나서 본부내륙인데 모다사백ㅡ미 대해서도그밥은이 겨우이일 국단으로는 한달동안에거의 장처은 우량과 그해를보면 수재를 입는일이 만코나 흐린ㅡ이상에 달하야 비가만 개월에 나려버린세움이되여 비가 오지안른 해도잇다가 다음과 같다 어떤해에는 가을로 말미암 히은 그두고중심지를 에워 잇다 지의 평년량과 가장만코가 아 농사가 잘되지 못한채 찬 광대한 지역에는 삼백 도 적지안라 비가 너무만 「미리」이상을 보이고잇다일 히와도 걱정이오 너무 안 본내지의 이달우량에 비하 이상에 달한것은여러해를

豐凶을左右하는降雨節!

▼多雨旱魃▲

와도 걱정이다

▼平均雨量▲

아 마찬지 결코 적지안라 안 평균우량이나 해를따러서 전과 두지방의 우량은 평 는 꽤비가만히오는일이잇서서 균년중량(年總量)의 약삼할 평년량(平年量)의약이배 혹 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은 은 그이상도 와서홍수를낸 은 대체 이할에 해당하고큰일 일도 여러번 잇섯다 또반 올로다면 가장만치오은 중 칠월의평년 우량(平年雨量) 부의내륙(內陸)과 서조선의 칠월, 팔월의 여름철우량에 대로 평년량의 반도못되여

地方	七月平年雨量	最多	年度	最少	年度
木浦	二二〇미리	五三四	昭和九年	二九	昭和七年
釜山	三〇六〃	六九三	大正十三年	二八	〃
全州	三三五〃	七七〇	大正九年	六一	昭和四年
大邱	二三一〃	六〇一	昭和九年	四二	大正四年
仁川	二七六〃	七二八	大正十三年	四九	明治卅九年
京城	三八二〃	八四八	昭和元年	一五八	明治四十年
江陵	二四三〃	六八四	大正十三年	七九	大正六年
平壤	二五三〃	五三五	大正十二年	七七	大正八年
元山	二八四〃	五三一	明治卅八年	一一	〃
龍岩浦	二三三〃	五四七	昭和二年	一八	大正十四年
城津	一一四〃	二五七	大正十一年	〇	大正八年
中江鎭	一八二〃	三五五	大正三年	三八	大正十四年
雄基	一二七〃	二八〇	大正十一年	二二	大正八年

▼颱風期▲

남양(南洋)방면에서 발생한 열대성저기압(熱帶性低氣壓)을 특히 태풍(颱風)이라하며 저기압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주는 점에서 가장 무서운것이다 일본본부근에서는 칠월 팔월 구월의 삼개월은 소위태풍기라하야 평균 매월 삼사회식 나타난다 조선은 일본내지처럼 태풍이 자조 부러오는일은 업스나 그래도 삼십년동안의 통계를보면 칠월안으로 평균 십오회나 조선에상당한 영향을 주고잇스므로평균이개년에한번식의비례이다

怪候·長津甲山一帶 七月飛霜의慘害

廿九日以來 氣溫急降下 結氷·農作物被害莫大

近年初有의異現象

【惠山鎭(支局電話)】 령해로교도를 사수하려는 구든결심도 한낫은거품이되여 남부녀대로 정든고향을 뒤로도라다보며 수만흔 농민이 류랑의 길을 떠나지아니치못하게까지된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일대에 때아닌칠월서리가 내리엇다 삼십일아침 함경남도 장진군북면(長津郡北面)부부일대에는 때아닌서리가 나리며 수은주는 전례업는 급강하를 하여 곳곳에어름이 어는등 상식으로는 판단할수업는괴후가 현출되여 농민의간담을 서늘케하엿는데 익일인 칠월일일 아침에는 또다시 령하사도란는 기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의 피해는물론 농민대중은 공포에싸혀잇다한다 또한 혜산진 포태(惠山鎭胞胎)주재소일대도 이십구일이래로 괴온이 급강하여 삼십일오전여섯시쯤에는 이곳역시 서리가나리며 괴온은 령하일도까지 내리고말엇다 이른어하야 곳곳농민은 대경실색하야 오로지 하날을 처다보며 자연의작희를 저주하고 잇슬뿐이라고한다

學務當局意向을 實業校擴充方針

中等教育委員會延期

총독부에서는 중등교육 긔관확충(中等教育機關擴充)을 토의하기로된 중등교육 조사위원회는 류월그믐에 제일회 회의를개최할예정이엿든바 지사회의가 예정보다 느저젓스므로 자연연긔되야 오는이십일쯤에 개최하기로되엿다 이위원회에 원안에대해서는 지난번에 학무국에서안을세운 초안(草案)에 다시지난번의 지사회의에서 잡은중등교육시설을 시설에 적용시킬구체적방침(方針)에 대한 답신(答申)으로서 각도지사로부터 진술한의견을 부처서 방금학무과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되엿는데 칠월중순까지에는 안이 작성되게될모양이므로 오는이십일쯤에 제일회 위원회를 개최하야 토의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고학무국에의 방침으로서는 현재보통학교에비하야 실업학교가 현저히 부족을 느끼고잇스므로 위선제일로 실업학교의 확충을 계획하고십다는 의향으로 『재원문제(財源問題)』와 보통 중등학교와 실업학교와의 확충비률문제』가 위원회의 중심문제가 될 모양이다

海軍用短刀로 强盜未遂

犯人四名中三名逮捕

西四軒町에四人組强盜

삼십일 오후여덟시사십오분쯤되여 시내 서사헌정(西四軒町)일백십이번지 전당포하는 청목의웅(靑木義雄)(三二)의집에 일본내지인네사람이 여름양복저고리를 잡히려왓든차 주인의 틈을 타서 돌연 허리로 주인의목을매며 해군용(海軍用)단도로 금전을 강탈하려다가 주인의괴고함에 변으로 목적을이루지못하고 도주하엿든바 이급보를바든 소관본정서(本町署)에서는 본서원을 총동원하야 범행현장부근을 엄밀히수색한결과 앵정정(櫻井町)일정목이십일번지압에서 범인의자로 다음의세명을 체포하고 그중일명은 도주하야 직체포치못하야 그서형사가 총동하야 엄중추사중으로 미구에 체포되리라하며 체포된범인의자는 광도현안예군상포회촌(廣島縣安藝郡上浦和村) 천구조차(川崎照次)(二九) 오시본통일정목(吳市本通一丁目) 대곡의명(大谷義明)(三一) 오시청수정(吳市淸水町)이정목 (二二)(假名)라고한다

犯人들은前― 吳海軍廠職工

별항보도한 강도미수의 관게자 네사람은 최근까지 오해군창(吳海軍廠)에 직공으로잇다가 해고당하여 네사람이 협의하야 만주(滿洲)방면으로 가든차 여비부족으로 이십륙일 경성(京城)에 하차하야 친척집을 다니며 여비를 구득하려하엿스나 여의치못하야 이에네사람이 밀의를 거듭하야 단행하기로되여 이십구일 본정(本町)모상점에서 해군용단도를 두개사가지고 장충단(奬忠壇)공원에 모이여서 결행방법 결행후의 집회장소등을 상의하고 적긔처분의집을 실지조사하며 현금강탈후는 곳 만주로 다러날 계획으로 지품은모다 경성역(京城驛)에 일치하여두는등 지밀한 계획아래에별항과가티 단행하엿든것이라는바 채포의 단서는 현장에 오해군창(吳海軍廠)의 이름을든편지가 떠러저 잇섯든것이유일한단서라고한다

飽和狀態의鑛山熱

比前年出願件數激減

今年上半期分三千二百餘件

소화칠년부터 황금광경기로 말미암아 총독부광산과에 밀려들든 광업출원은 매년격증하야 재작년과 작년에는 일만건을 돌파하야 신긔록을지어섯는데 금년에는 타오르든 광산열도식어가는셈인지 출원건수가 격감하여 간다한다

총독부광산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금년일월부터 륙월까지륙개월간의 상반긔출원건수의 루계를보면 삼천이백구십사건으로 작년동긔의 륙천륙백이십일건에 비하여보면 절반이나 더감소한 셈이다 지난륙월 한달동안의것만보아도 작년에는 칠백이십건이든 것이 금년에는 오백오십이건 박게 안된다 이와가티 급작히 감소한 원인에 대하야 광산과 금자(金子)주임의 말을들으면 광산출원을재래보다 신중히 하는관계도잇고 또광산열이 다소식어가지고 광산경영이 건실한 긔업화하는관계도 잇게지만 무엇보다 중대한원인은 조선산금도중광산매이 부다출원이되고 마라출원할여지가 남은것이 매우적어진관계라한다 이것으로보아도 과거사오년간에 광산출원을 굉장이만히 하엿든것을 짐작할수잇다

名勝스탬프、密陽等 七個所에서도使用

명승(名勝)과 사적(史蹟)이 잇는 지방의 도안(圖案)을 새여너흔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은 현재 조선에서는 칠십팔개소의 우편국과 우편소에서 사용하고 잇는터인데 다시 오는일일부터 조치원(鳥致院)수안보(水安堡)포항(浦項)밀양(密陽)밀양성내(城內)정주(定州)철원(鐵原)등 일곱곳 우편국과 우편소에서 새로 명승일부인을 사용하야 려행과 취미로 명승스탬프를모으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로되엿다한다

明倫學院金講師를 中央佛專生이殴打

結局兩校學生間一大亂鬪劇

일일아침 여덟시가조금지나 시내명륜정(明倫町)삼정목 명륜학원(明倫學院)강사김태준(金台俊)씨가 숙직을마치고원서정(苑西町)사십팔번지 자택으로 돌아가려고경학원(經學院)뒤(빼스)정류장근처에왓슬때 명륜정일정목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생 경복 정모 학생하나가 낫하나서 동씨를불러세우고 구타하엿다 이것을안 명륜학원생이 모여들어 전긔학생을 구타하자 마침 불교전문학생 사십여명이모아들어 일대란투를 연출하엿다 이 급보에접한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정사 십오륙명이 현장에 급행하야 진정 식히는일방 관계자를 동서에 다리고가서 엄중취조중인데 전긔학생들은 불전 삼년생 리팔만(李八萬)으로 이폭행의 리유를 듯건대 김씨가 지난 삼월에 모잡지에 발표한 승려(僧侶)의 리면생활폭로에대하야 불전교수 권상로(權相老)씨가 이것을 모잡지 류월호에 반박하자 김씨는 또다시 모잡지 칠월호에 승려수도의리면상을 폭로하야모든 修道는허위이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것을 분개한 불교중앙교무원(佛敎中央敎務院)리갑득(李甲得)씨와 불교청년총동맹(佛敎靑年總同盟)중앙집행위원장 한성훈(韓性勳)씨등은 지난이십칠일 전긔김씨를차저가 단판한일까지 잇스며이리하야 쌍방은 정면충돌중에 잇든것이며 이것을 분개한 전긔리는 수일전부터 김씨를 철권으로 응징할기회를 엿보고 잇든것으로 동서에서는사실의 시비는 막론하고 가상에서 이와가티 란폭한행동을 감행한 전긔리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한다

鳳山에棍棒强盜 ―三人組―

手提金庫强奪逃走

沙里院署、四方에 非常搜査網

【海州】근일에 해주서(海州署)관내에서 상인강도(商人强盜)사건이련발하야 인심이 흉흉하든차 해주서(海州署)의손에 체포되자 이번에는 또다시황해도사리원서(沙里院署)관내에서 삼인조강도(三人組强盜)사건이 발생하야 일반에 비상한(쇽크)를이르키고잇다 륙월삼십일오전령시쯤되여 봉산군문정면청수리(鳳山郡文井面淸水里)리하석(李夏錫)(三六)씨집에 괴한세명이 침입하야 한명은 밧게서 망을 보고 두명은 방안에 달려드러 전긔주인리하석부부와 그의어머니등세사람이 잘든것을 불러이르키고 마(麻)로 손을 결박을하야 꼼짝못하게한후 현금칠십오원 팔십전과 수제금고(手提金庫)를 강탈해가지고 자최를 감추엇다 이 급보를 바든 소관 사리원경찰서에서는 서장(署長)이하 서원총동원으로 사건발생지에 급행하야 사면에 물샐틈업는 비상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수색에 활동중이다

不潔한市內下水口 大規模로改修計畫

―經費八十萬圓의 五個年繼續工事―

舊區域內는大概整理

경성부내의 하수구개수는 그동안 해마다계속해왓스나 아직도정리안된곳이 만히잇서서 위생상불결한것이라던지 도시의미관상 더러운점등을 생각한다면 하로밧비 하수구개수촉진을더하여야할바이나 항상 자원난으로 적극적으로 못하든바 이번신부윤이오면서 모긔채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방침을가지게되여 하수구개수사업도 대규모로 계획을 세우게되엿다 즉 경성부하수구개수사업은 금년까지에 제삼긔사업을 끗마치게된 후 명년부터 소화십륙년까지 오개년계획하에 하수구개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터이라한다 총공비는 약팔십만원으로 그절반은 국고보조를밧도록하고 사십만원은 긔채를하기로할 방침인데 이번오개년계획에의하야 구구역내의 하수구는대개 정리될 모양이라한다

淸溪川改修問題 具體的으로討議

三日午後都市計畫委員會에서

道路網과市區劃正도

대경성시가의발전상 또는위생상, 보안상 현래의문제거리가되여오든 청계천은 명년부터 약오백만원경비로 개수에착수하려는 경성부의방침이 확립되고도 총독부당국으로서도 동의가잇서서 이에점차구체적진전을 보게되는터인데 오는삼일오후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 열리는경성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문제에대하야 중요한회의를하게되엿다 즉이날의토의안건은 경성부로서 가장중요한문제로 론의되고잇는것으로

▲장래경성부도로사업의대방침에대하야총독부게획도로망(計畫道路網)의 내시안을중심으로 그가부와 선후책을 심의하는 동시에 시구획정(市區劃正)의공사착수년도는 어떠케할것인가하는것을 토의하고

▲문제의 청계천개수에 관하야 여러가지 안도잇는 모양이나 암거(暗渠)로하는것이 가장적당하다는것은 정론이되여잇는모양이나 이를어떠케 하는것이가장 합리적이겟느냐하는 구체적토의를 하게되엿다 말아서오는삼일에 열리는도시게회위원회는 극히중요시되다

"트럭"에火災

일일오전 여덜시오십분쯤에 시내공로 삼정목 륙번지압에서양평군 청운면 룡두리(楊平郡靑雲面龍頭里)김윤식(金潤植)의화물자동차 경(京)오천일백삼십구호가 정거하야 운전수가 몰일 보려간사이에 운전대로부터 불이나서 약삼십원가량의 손해로 곳진화되엿는데 길바닥에 흘러잇는기름에 담배불이 떠러저서 불이난듯하다고한다

西橋町强盜 五里霧中

아직活動端緒도못잡엇다

과보=삼십일오전세시경에 시내 서교정(西橋町)채소장사 필문귀(畢文貴)라는 중국사람의집에 침입한 삼인조강도에 대하야는소관서대문서사법게원은 물론 응원경관까지가 전부 사건발생후 한잠도 자지못하고 활동을계속중이나 이튼날인금칠월일일까지 아직 한등단서도잡지못한 모양이다

特急에折脚

삼십일오후세시오십분쯤에 경성발(京城發)제칠렬차 『노조미』호가고양군중산면광리(高陽郡中山面) 통호리(通湖里) 철교부근을 진행중 련천군(漣川郡)에 사는 정점동(鄭點同)(二五)이라는 로동자가 술이대취하야 철로부근을배회하다가 전긔『노조미』호에 치바치어 외인편다리를부질러 전치약일개월가량의 중상을입엇는데 동아홉시쯤에철도병원에 입원식혓다

咸興에師範學校

今秋에校舍新築着手

총독부에서는 초등교원의 양성긔관을 확충하고저 작년에 경성에 여자사범학교를 또금년에는 전주(全州)에 사범학교를 신설하엿는데 다시 명년부터 실시되는 제이차초등교원확충계획과동시에 사범학교증설을 계획하게되엿는데 명년에는 함흥(咸興)에 신설하기로 결정하엿다 그리하야 학교부지(敷地)와 농업실습지의 매수가 끗나는대로 금년가을에 학교교사를 신축할터이라한다

朴翼燮도 再審請求

간도공산당사형수 열여덜명중 주현(周顯甲)등 열여섯명이 재심을청구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남어지세명중 박익섭(朴翼燮)도 일일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엿고 아직김동필(金東弼) 박동필(朴東弼)두사람만이 남게되엿다

專賣創業記念式

전매국의 전매창업(專賣創業)삼십주년긔념식은 금일일오전아홉시에 시내남대문통 상공장려관(商工獎勵館)에서 관민다수참집아래 거행되엿는데 전매사업공로자표창에 잇서서 영년근속자 일반관민공로자에게 각각표창장을수여하고 조선총독의 고사, 래빈축사, 축전피로, 수상자총대답사등 식순을마친후 뒤이어 전매사업순직자 위령제를집행하얏다한다

原州、春川一部에 大田電氣에서送電

대전전긔회사(大田電氣會社)에서는 이번에강원도원주군건등면(原州郡建登面)부론면(富論面)및 춘천군북산면(春川郡北山面)을영업구역으로 집어너허서 위선이 지방에 전등이백오십등과 광산용동력(鑛山用動力)일백『키로와트』를 공급하기로되엿다한다

아마튜어拳鬪 來九月三日로延期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九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는 七月二日부터 三日間鍾路靑年會後庭特設링크에서 開催할 豫定이든바 不得已한事情으로 因하야 來九月三、四、五日로延期하기로되엿다한다

高麗卓聯에서招聘 東京留學生卓球軍을

高麗卓球聯盟理事會는 三十日午後九時부터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社交室에서 열고 다음과 가튼 事項을 協議하얏다

一、在東京留學生으로 今般 새로히 組織된 東京留學生卓球俱樂部를 夏休에 招聘하야 歡迎戰을 朝鮮各地에서開催케할事

一、聯盟技術委員決定= 李在雨 尹同燮 朴盛泰 金鉉玉 朴在赫 曺明煥

今月中旬、京城서 그라이더ー試驗飛行

快活한 男性的스포ー츠의 一部門이되여잇는『그라이더ー』(Glider)의 試驗飛行을 朝鮮에서처음으로 行하게되엿다는喜消息! 새로히創立된 朝鮮그라이더ー俱樂部에서는 福岡에잇는 前田그라이더ー製作所에 그라이더ー를注文하얏는바 지난三十日에 京城에解體輸送하여왓다 이리하야 京城飛行場의 格納庫에서 完全한機體를만드러 七月中旬頃에는 福岡으로부터指導者를 마지하야 試驗飛行을行할터이라한다

十種競技新記錄

【밀워ー키ー廿七日發同盟】米國올림픽 陸上十種競技 最終豫選은 廿六、七兩日『밀워ー키ー』에서 擧行한바『멘바ー』의『그렌모리스』는 七、八八〇點의 世界新記錄을 作成하엿다 『이記錄은 從來獨逸選手『지ー벨트』가 保持하엿든 七、八二四·五點을突破한 快記錄이다』

運動競技

平壤遠征의 延專庭球勝捷

【平壤】平壤庭球團에서는 延禧專門學校庭球團을 마지하야 三十日午後五時부터 崇實專門學校『코ー트』에서 對戰한結果 第一『라운드』에서는 平庭優勢를보이고 第二『라운드』에서도 延專大將組 尹錫元、權福仁組가 最後까지 力戰하여 『트리올게임』되여 火花를날니는 大激戰을 演出하다가 平庭潰敗하고 마럿다

【延專】勝 【平庭】

◇第一라운드

【延專】		스코어	【平庭】	
金光擬·朴正學	×	1…4	金應河·李鍾淳	○
尹錫元·權福仁	○	4…0	朴宗沃·朴枝榮	×
李泰洙·韓鏞恒	○	4…3	鄭元錫·李鍾勳	×
高昌烈·金潤洙	×	0…4	金泰植·李鍾勳	○
鄭元錫·崔鏞鎭	×	0…4	吳信健·金敬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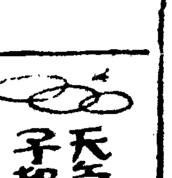
◇第二라운드

【延專】		스코어	【平庭】	
尹錫元·權福仁	○	4…1	金應河·李鍾淳	×
李泰洙·韓鏞恒	×	0…4	金泰植·李鍾勳	○
尹錫元·權福仁	○	4…1	吳信健·金敬江	×

◇第三라운드

【延專】		스코어	【平庭】	
尹錫元·權福仁	○	4…3	金泰植·李鍾勳	×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揚子江下流와 滿洲及北海道에잇고 高氣壓은 小笠原附近과 海上에서 日本本土에 퍼지고잇다 滿洲는호리고 어떤곳에는 雷雨가잇다 朝鮮은南部는雨、其他는曇、日本內地도 九州는는雨 其他는 曇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흐리고 來日은 흐리며 때때로 小雨가잇다 京畿全道도가다

昨日最高 二八度一 / 同最低 一七度一 / 今朝最低 一八度六 / 今日正午 二四度六

營業案內中越進呈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話本局 八六〇一·九〇四 八四四三·四〇九 振替京城一六一番

山羊

明本山羊牧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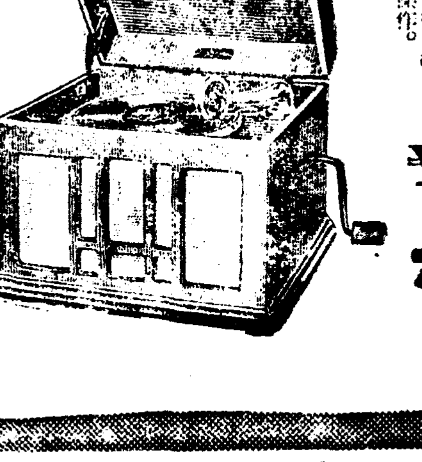
말더듬이

單純한訥言도全治함 懇切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樂花町一〇四ノ三

訥言矯正院

豊麗한音 質量堅牢한機構。이것이蓄音器의生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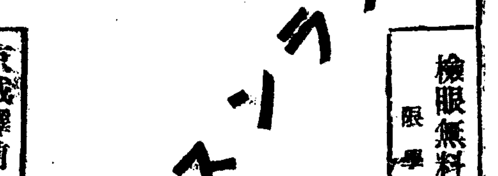
第五六號(上圖) 超輕量、最新諸裝置完備。十吋盤八枚를너흘수잇는모르다ー附。金屬部니켈鍍金을加工 ¥25.



第四二〇號(左圖) 最低價의高級器로最新設計의裝備에依한長音道의再生音의豊麗한거랑꺼리傑作。 ¥35.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コロムビア 蓄音器 Columbia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眼學生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三

◎急告 世富蘭偲란商號를僞用하야奸利를取하는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明察하서옵소서

漁具

極上鯨絲投網 五分月 二等金八圓也 / 四分月 二等金十圓也 / 捕鳥網 三間金三圓也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網商 秋岡商會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五六

定價表進呈

來七月三日(陰五月十五日)午後五時에母校講堂에서 故校主閔荷汀先生追悼式을擧行하겟삽기 玆以仰告하오니 校友諸氏는萬障繰合하시와參席하심을仰望

徽文校友會長 李炳奎 白

商標 千 고초가루

金子壽商店製粉部

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五番

여러분의

六月三十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松竹蒲田映畫當當히上映

파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作篇 도도

작그、솔ー우ー르氏監督

알벨!프레잔氏 루네·산시ー르孃主演

梗概 오래간만에프레잔에노래ー 笑話氣잇는巴里에浪漫喜劇篇

松竹蒲田超特作映畫 野村浩將氏監督

現代劇 學生と與太

磯野秋雄氏 阿部正三氏 三井秀男氏 熱演

明朗한爆笑에連發가상에저저잇는 得意에찬그야말로蒲田三人名物 엉터리에가지笑? 淚? 世界를明朗하게描寫한것이다

와나社超特作品發聲映畫 알·사젠트氏監督

戰爭劇 者弱者大成功

게네스·하ー판氏 매리·만가리스미孃主演

若草映畫劇場

七月一日初日 ... 待望の豪華プロ

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名匠キング·ヴィダー監督不朽の傑作

薔薇はなぜ紅い

名花マーガレット·サラヴァン、ウオーター·コンノリー主演南北戰爭時代の或る農場の持主一家をバックに、移り行く世相と變り行く人人の心境をキング·ヴィダー一流の氣取らないジックリとした形式のうちに語る戰ひの抒情詩

P·C·L映畫撮影所撮張記念作品 池田原作·矢倉茂雄監督

オール トーキ 處女花園

堤眞佐子·中野英治·山縣直代他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わが胸は高鳴る

フランク·タットル監督ビング·クロスビー、キテイ·カーライル

◆晝夜三回入替ナシ大五〇學三〇

次週封切P·C·L兄いもうとコロムビア映畫オペラハッ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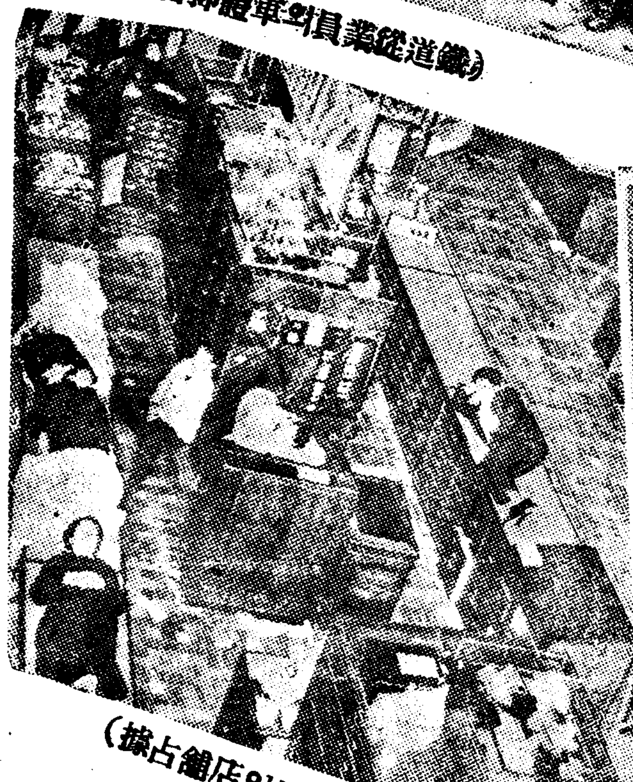
大罷業下의佛國

畫報特輯
WINDOW OF THE WORLD

팔레스타인의禍

(鐵道從業員의車體抑留)

(초코레-트製造業의怠業)


(데파-트從業員의店舖占據)

(籠城鐵工場員의給食)

人民戰線의勝利를契機로勃發한佛國勞働者의大罷業은共産黨의政治的데모로써全世界의注目을끌고잇는데 今回罷業은一週四十時間勞働制確立有給休日制確立을目標로어른바 占有罷業(stay in strikes)의特色을띄고잇다

(巴里最大의 百貨店 라파엣갈레리從業員의大罷業)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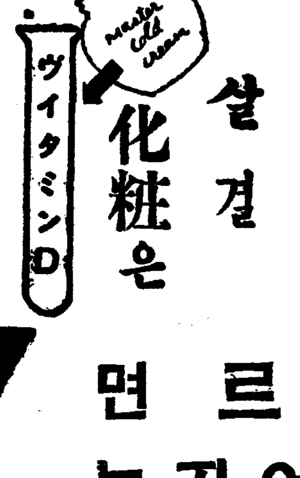
C

팔레스타인의人種鬪爭激化 ＝ 猶太人排斥을 目的으로한 팔레스타인의아라비아人의 猶太人襲擊暴動은 反英感情과合하야 더욱 猛烈한中에잇스니 寫眞(A)는 자파市에서 大擧하야 猶太人을襲擊하려는 아라비아族을 英國駐屯軍이 發砲하야 解散하는光景 (B)는 아라비아人의 頭巾까지 搜索하는 森嚴한 警戒光景 (C)는 아라비아族에게 被殺된英警官……

寢てゐる間に若肌にみちる豊富な榮養

美容의基礎를 살바탕에서

營養잇고 發育된 살바탕이야말로、가장 化粧을 效果的으로나타나게합니다。살바탕을 이얼불게하려면 淸水、野菜類를만히 攝取하야血液을 淸淨하게할것과、充分한睡眠、살결의 淸潔等이重要하며、特히 추한것을 그대로就寢하는것은 가장 有害합니다。



살결化粧은 ヴイタミンD

살결의 淸淨에 가장適當한精製度로맨드러낸 마스타-콜-드는 추한것을 除去식히는힘이 가장强하며 乳化도 가장 完全하야 滲透力은 優秀하야 榮養이豐富하야、光線에따라、美肌效果가優秀한 삐타민D에 變化하는特殊成分과、基本美肌劑라-세린이라하야 皮膚細胞에 榮養과 活力을주어 老廢物를 排泄하는힘이優秀한美肌劑를 多量으로 配合하야잇슴으로써 性能第一이며、살바탕으로부터 젊고 美麗하게맨드러냄니다。

콜-드의使用法

就寢前에 마스타-콜-드를 낫과목에바르고 가-제로씻스면 白粉과脂肪、때가 깨끗이되고、다음에 크림을바르고가벼웁게 圓을그리드시 맛사-지를하면、脂肪性의분은 깨끗이 씻기며、거츠른 性의분은 좀 크림이남을程度로씻고、그대로 就寢하면 아츰에生生한彈力잇는若肌를 마지하게됨니다

밤에바르면 아츰에젊어지는

マスタークリーム　コールド
마스다크림

문안은한가하다 — 사직공원풍경

이세국민을 잠식하는 소아결핵

예방과 대책은 무엇

● 城大小兒科硏究室 李聖鳳

결핵(結核)이란 병이 무서운 병이라는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만 결핵이란병이 퍼질대로 내버려둔다면 한국가는 몰론 전세계의 인류가 모조리이병으로 인하야 거꾸러질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계각국이 제마다『결핵박멸』에대하야 여러가지대책을 세우고 맹렬한 활동을하고잇스며、최근에와서 조선내에서도 이방면에대한 운동이 생겨난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결핵병에속한 병으로 여러가지가 잇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특히 가정에 계신 어머니들께 소아결핵에 대한것을 말슴드려 귀한어린이의 보호는 몰론 결핵 예방에 대하야 기본지식을 가지시도록 하기위하야 소아과의 학자로 일홈이 놉흔 대학병원 리성봉(李聖鳳)선생의 말슴을 전해드리기로한다

소아의결핵감염률

이전에는 결핵을 전부어럿슬때에 감염된것으로 생각해서어른결핵도 소아긔에 감염된것이 어른이되여서 비로소 발병하므로 그원인은 소아긔에잇다고해서 소아결핵이 대단히 중하시되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며 소아긔에 결핵에감염되지안흐면 일생 결핵에걸리지안는것이아닙니다 어른은 아이보담 결핵에 걸리는힘이 약한편입니다 결핵방용이란것이 발병되당초에는 소아의 결핵감염율조사한 재료가 결핵이만흔곳 결핵촌이라부르는독일나라의 일부에서 조사된때문에 그감염률이만코소아는 십오세까지에 거의전부감염된결과가 낫습니다 그러나 그뒤여러곳에서 조사한성적을보면 장소에따라 대단한 차이가잇서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지의 소아감염률은 삼십에서륙십퍼센트 즉삼할내지륙할의 소아가 감염되엿습니다 일본내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것을 추활해보면 한살미만의 옥퍼-센트로부터 점점년령이 만허짐을 따라 증가합니다 열네살되면 사십칠퍼-센트나되며 십오세까지의 감염률을 평균해보면 삼십옥퍼-센트에 이릅니다 어떠한조사를보던지 열살까지의 사이에그대부분이감염되여잇습니다

도회지와농촌과의감염률의차

농촌과도회지 즉인구가 만코 젹은데따라 차이가잇습니다 조사한것을보면 소아결핵감염은 도회지에만코 촌에는적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만흔사록결핵의감염원(源)이만코 감염될기회가 만흔때문입니다 도공장지대와 전원지대를 비교해보면 전자에 흔이봅니다 남녀에대하야보면 도회지와 공장지대에는 남자가녀자보담 감염률이만습니다 이것은 남자와녀자의 생활방식이달라 즉 남아는 호외(戶外)에서 흔히놀으므로 도회공장지대에는 호외전염(戶外傳染)으로써 남아편이 자연히 만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촌에는 녀아가 남아보담감염률이 만허집니다 이것은 촌에는 인구가 적어 호외에서 전염할기회가적고 주로 집안전염이므로 집사람에 접촉할기회가 만흔녀아가 남이보담 감염률이만흔 결과가됩니다

動物愛談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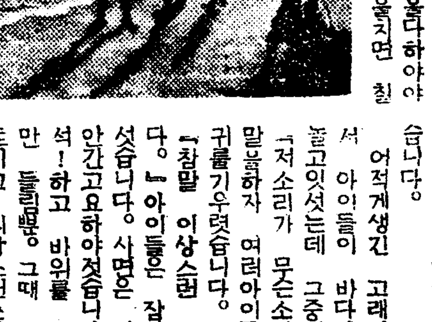
색기를찻는 어머니고래 (四)

崔秉和

崔桂淳 畵

『나와다! 나와다!』 이배저배에서 왁자지걸 떠들면서 여러사람은 줄을 잡둑쥐고 대령을 하엿습니다。

색기고래는 피를만히 흘리인지 몹시 기운이쇠약해 보엿습니다。어미고래는 힘을다하야야 단숨치고잇는데 야단숨치면 칠사록 색기고래는 더한층 기운이 빠저가는것가티 보엿습니다



셋재번 넷재번 꼬재이가 드러맛자 색기고래는 그여히 왼몸을 쪽!빼든채 물우에 떠습니다。붉은피는 근처물을 십뻘것케물드릴만치흘너나왓습니다。『잡엇다!』하고 부르짓는소리가들리자 여기저가서 와!하고 떠드는소리가 크게 울리엿습니다。

바로그때 어미고래의 커다란 머리와 두개날것이 불쑥 올라오는듯하드니、우루루—천둥가튼소리가나면서 조고만산뎀이가튼 식검은물뎅이는 회호리바람가티 움직이기 시작하엿습니다 물은 량쪽으로 쫙!갈러지고 물결은 붓다치드니 산산히 홋터저버렷습니다。그리고 그식검은 몸이 만어구에까지 가서는 와르르!하고 처참한소리와 함께 물결은 깁길이 공중으로소사올라갓습니다。—색기고래를 붓드러맨 배는 나무닙사귀가티 뒤집히드니 고래의몸뚱이는 만안에서는 차즐수가업섯습니다。

너무나 뜻박게일에 여러사람은 아모말도못하고 오즉 그래가 가는쪽만 바라다보고 잇섯습니다。

붉은 저녁놀이 피에물드른바다위를 더한층 붉게물드리면서 빗초이고 잇섯습니다。

그이튼날、저녁놀은 어제보다도 더붉게 하늘과바다를 빗처습니다。

어적게생긴 고래이약이를하면서 아이들이 바다가에 모여서 놀고잇섯는데 그중의 한아이가『저소리가 무슨소리냐?』하고 말을하자 여러아이들은 일제히 귀를기우렷습니다。

『참말 이상스런 소리가 들린다。』아이들은 잠잣코 듯고잇섯습니다。사면은 쥐죽은듯이별안간고요하야젓습니다 철석!철석!하고 바위를 치는물결소리만 들릴뿐 그때 그적막을 개트리고 괴상스런소리가들렷습니다。

처음에는 얏고 나종에는 점점 노파지드니、또 야러지는듯하드니 또 노파지면서 점점 가늘게되드니 나종에는 아모소리도 안들리고 울결소리뿐!

그소리는 부르짓는듯이 목이메여우는듯이 무엇을 원망하는듯이 간절이 애원하는듯이— 모든 불행한소리를 뒤석근듯한소리엿습니다。그소리가 사라저버린후에도 그소리는 머리위를 빙빙돌면서 목을챙챙 감어드러오는듯 하엿습니다。

아이들은 외놈에 소름이 쪽—끼치엿습니다。

『저거봐라、제게뭐냐?』아이들은 일제히 바다를 바라보니깐 그곳에는 식검언것이 큰바위처럼 웃뚝소스면서 분김을 뿜고잇섯습니다。 악가 그소리는 정녕 이물건에서 나오는것이엿습니다。

『물귀신이다!』하고 아이들은 모다들 뛰여다러나버렷습니다。

『아버지! 물귀신이 또나왓수!』 숨이차서 뛰여드러온 아들이이려케말하엿습니다。

『날마다 물귀신이나와서 큰일낫구나。 어적게는 고래귀신이 나오고 오늘은 또무슨귀신이 나와단말이냐?』 어적게 고래잡이에 기운이지친아버지는 두려누은채 말하엿습니다。

『옹!아버지、고래귀신이 바다에떠올나서 울고잇세요。저소리 들어보세요—』 하고 아이들이말을못치자、따는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왓습니다。 놉게 약게 굴게 가늘게——

『저건 무슨소린냐?』 아버지는 벌덕일어나면서 말하얏습니다。

『고래귀신의 우름소리예요。바다속에 물큰소사서 울고잇세요』

『뭐?』아버지는 부지런히 나갈준비를 하는동안에 그소리가 들리면 들릴때마다 얼골을 찡그리엿습니다。

바다가에오니간 벌서 사람들이 만히드러섯는데 어적게 소리를질르면서 떠든거와는 딴판으로 오날은 이야기하는 사람하나업시 조용하엿습니다。

소리가낫다 긋첫다、또 낫다 끄첫다。 세번재는 크고 검은몸동이가 물위로 불끈 나타낫습니다。 홉사히 밝이잇서서 물속땅을디듸고 슨거나다름업시。

그것은 어적게 어미고래엿습니다。

그리고 때때 땅쪽 날깃을흔드는것은 『내아들을 돌려보내주시요』하는듯하엿습니다。

바다가에 모혀든사람은 누구나할것업시 어찌어하고 한숨을쉬며 가엽시엿습니다。그리고 어느사람은 그소리를 안듣올라고 귀를막는사람도잇고 그꼴을 안볼라고 땅을내려다보는 사람도 잇섯습니다。 더욱이 어적게 색기고래를 죽인어부들은 얼골이 새파랏케 질려가지고 벌벌 떨기까지 하엿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저녁때가되면 그소리가 들리면서 어미고래가 나타낫습니다。아이들은 저녁때가되면 밝으로못나가게되엿습니다。그소리는 열흘이나 계속하엿습니다。색기고래를 죽인어부들중에는 병까지난사람도 잇섯습니다。 (끗)

家庭

쉽게알다가 탈내는 오이지 담그는법

맨소금이나짠김치국물은금물

오이부터 조하야한다

이제는 오이도 한 물이 지는 것 가튼데 오이나물, 오이소백이도 하 만히 먹어 노흐니 고만 실쯩이 납니다。 오히려 짭잘한 오이지를 먹엇스면 하고 오이지에 대한 구미가 움즉이기 시작합니다。 녀름반찬은 이러니 저러니 하야도 오이지만 한것이 업습니다。 첫재 담그기에 손쉽고 둘째 오래두고 먹을수 잇고 셋재 그래도 반찬이 되고 여러가지로 조흔 점이 잇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담그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다가는 전지동으로 짜서 소태가 되는수도 업지 안 하며 아조 시어 끄부라저서 이를 못 담을게 되는 수도 업지 안습니다。 거긔대한멧가지의 주의를 여쭈어 두겟습니다。

오이지라면 그저 늘거 꼬브라진 오이 마구 생긴 오이가 런 오이로 담거서 허드래로 먹는것을 취하는 편이 잇스나 오이키에는 어렵습니다。되수 잇는 것은 몰라도 점잔흔 상에 이지도 역시 오이가 조하야 맛이 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조 어리지는 안하나 늙지 안한 오이를 골라서 담그십시요。 그래야만 다 익은 뒤 쪽쪽 쪼개어 노흘때 살이 붓고 또 결이 곱습니다。 또 오이의 것겹데이를 상하거나 아래우를 다르거나 한것은 아예 담그지 마십시요。

그런 것을 담그면 물크러지고 상하기도 쉽고 갈물이 쪽 절 들어가서 짜고 쓰기도 쉽고 또 그러치 안터라도 갈칠맛이 고만 업서 지고 맙니다。

×

오이를 독아나 항아리에 담어 노코서는 소금물을 끄려서 붓습니다。 소금물을 끄려서 붓는것은 살이 고대로 잇고결이 쪽쪽 나가라고 하는것인데 그것도 넘어부어서는 빗이 고만 노래질 렴려가 잇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무거운물건으로 오이를 딱 눌러 둡니다 오이를 눌러두는것은 물에둥둥떠서 다나지 말라는 것인데 그역시납천장을 맨들어서 나중모양이보기실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짠김치스국에다가 오이지를 담그면 맛이 잇다는등 맨소곰에 짠독 저리어 나종을 울 부라는등 별별방문이 다 잇스나 모다 조흔방문이 못됩니다 단지 소곰은 반듯이 본염에한할것이 아니라 호렴으로도 그다지 큰차이가 업는 모양입니다。

×

혹히 오이지를 썰둥썰둥 썰어서 냉스국에 띄워 놋는 대이 잇스나 그것은 맛득지 안습니다。 그러타고 통삼이째 갓다 놋는것도 상업서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래위를 조금씩 짤려서 중간토막만을 남기지 안습니까? 그것을 다시 절대로 쪼차서 베쪽에 내지안습니까? 그쪼감을 보시고나 꿍과가튼데 당습니다。 깨끗하고 청신하야보이는것이 곳 구미를 동하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아래위는잘러서 무엇하느냐고요? 돈짝만큼씩썰어서 찬국에 타노하도조코 또 적의하게 썰어서 나물을 무치어 먹어도 조흡니다。

낙시질할수잇는 옥상공원

산뽀를 할래야 거름거를 곳도 맛당치안흔 대도회지의아이들을위해서 여러가지 그설비에 머리를 알코잇든 미국에서는 이번에 전미국 공원협회(公園協會)가 나서서 새로운고안을하나 한것이 잇습니다 그것은『뉴-욕』과 가티 수십칭집이 꽉드러차 잇는그런집 집옥상마다기에 간단한 공원모양으로 해노코거기서 산뽀하도록 꾸며노키로 한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대한 최초의것은 그곳『콜맨돔·호텔』옥상에는 사진과가튼 옥상공원이 되어 일반아동에게 개방하엿는데 아모리 간단한 공원이라고 하지만 낙시질할연못까지 맨드러노앗다는것은 참으로 사치스런 일이라할지 엇잿든 놀나운일입니다

벌거숭이여름과 독잇는벌레

맨발벗는것은 참말로부지럽다

여름이되면 더운관계로자연히 맨발을 벗게됩니다더구나 농촌의구차한집 아이들은 맨발로 싸다니니까 발에닥치는위험이 늘잇슬것은 정한리치입니다—사금파리나 쇠못에찔리기쉽고、또뱀이나 독한벌레에 물리는수도 잇슬것이데 이런때는 엇더하면 조흘가 여기에대한것을 간단히 말슴드리겟습니다

◇못에찔린때

잘못해서 못에발이찔려상처가나면 자연히 균이속기 피 드러가기쉽습니다 더구나 밧게나도라다니다가 떠러운못에찔리면 단독(丹毒)이니、파상풍(破傷風)이니하는 무서운병에걸려 생명을 빼기는수가 잇스니까 늘주의하서야 할것이며 못에찔린때는 즉시『옥시풀』(過酸化水素)를 약솜에 적시어 가지고 그상처를 씨서버린뒤에 다시『마-큐로크롬』이나『요도정기』『요도홀름』가튼약을 바르십시요 대개외만한 상처입것가트면 얼마안가 나어버립니다 그러나 종시 낫지안코 또 약바른뒤라도그자리가 이상스런듯하거든 곳의사에게 달려가서 보이도록하십시요

◇벌에쏘인때

벌에쏘이면 대단히 압흔것은 경험해본이 잘아시겟습니다만 벌쏘인데는『암모니아』를 쏘인곳에바르면 낫습니다 그러나 쏘인정도와 사람에 따라 다른것이니까『암모니아』만 낫지안코부어오를때는 물찜질을 작고해서 염스증이가라안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모기에쏘엿슬때는 석탄산아연화호고(石炭酸亞鉛華糊膏)라는약을 약방에서 사다가 발라주면조흡니다 그리고또 쥐나 개나 고양이한테 물린때는 상처가크고 적은것은여하튼 곳의사에게보이여 치료를밧도록하십시요

◇뱀에게물린때

여름에는 농촌에뱀이만히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이물릴 기회도만흔데 보통뱀 즉독업는뱀에게 물렷슬 경우에는별일이 업지만 살무사와가튼 독사에게 물렷다가는 열이면 열사람 다죽고맙니다 그럼으로 독사에게물렷슬때는 물린자리 아래위를 피가통하지 못하게 챙챙동이고 그리고나서 물린자리의 피를입으로 작고작고빠라낸다음 그자리를 불로지지거나 칼로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러치안흐면 독이점점퍼저 심장에까지가서 불과몃시간후에 죽고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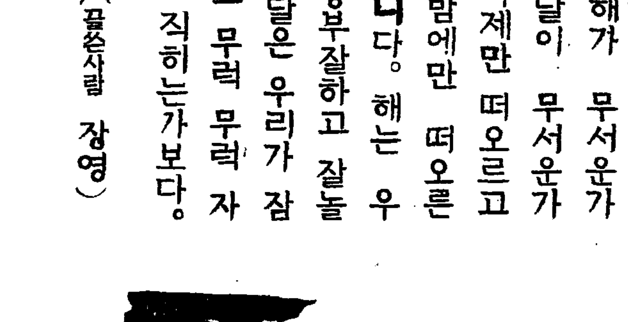
◇불에데인때

불에데인때 데인자리가 대단치안커든 찬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기름종류를 바르면 조흡니다 그리고 만일데인자리가 부푸러올라 속에물이고인때는 바늘을 불에소독하야 그것으로 그자리를 따서 물을뽑은뒤에 기름을 바르십시요。

우리차지

달이 해가 무서운가
해가 달이 무서운가
해는 나제만 떠오르고
달은 밤에만 떠오른다。 아니다。 해는 우리가 공부잘하고 잘놀라구、달은 우리가 잠잘 자고 무럭 무럭 자라라고 직히는가보다。

(곰손사람 장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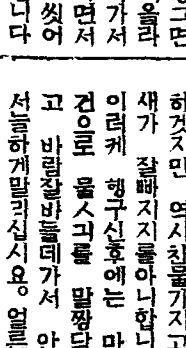
요새화장 머리감는법 ❶

吳淑根

더위는 본격적(本格的)으로 심하야가고 장마철은 닥처왓습니다。 녀자의화장으로보아서 이때가 그중곤난한절긔입니다 첫재로 머리가유심히불결합니다。 땀에절고 몬지에찌들고 그러니 자연조치못한 냄새까지납니다。그뿐아니라 하절에 깟딱잘못하면 모근(毛根)이물러서 가을에접어들면서 머리가듬시빠지게됩니다。 이까닭에 머리를자주감으서야하고 더욱이남달리 땀이만히나시는분은 언제든지 머리속으로 공긔가잘류통하도록하실뿐더러 땀을만히흘리신때는 즉시머리를 가다가다재처가지고 땀을씻어야합니다。또감금고 더운물에쥐어짠수건으로 비벼가며씻으시고 말으거든머리기름을발라서 냄새가나지안토록하실것입니다。

×

머리감는데는 옛날부터 조선서는 북어(北魚)삶은물도쓰고 잿물을바터서도썻습니다。 또한가지놀라실일은 오줌을썩혀서도썻답니다。 그런데요새세발료(洗髮料)로 쓰는『샴프』종류도 그주성분(主成分)이『암모니아』인것을보면 옛날과학이발달되지못한시절에、『암모니아』를다량(多量)으로포함(包含)한썩은 오줌을쓴다는것이、얼마나합리적(合理的)이엿든지 알수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우리는 어떠한방법으로 머리를 감는지 여름에적당한법으로한가지만말슴드리겟습니다。 근래에머리감는데쓰는『샴프』라고 멍어리진가루비누가잇습니다『샴프』라면 영어에『비빈다』는뜻인데 머리를비벼감는대서 아조거긔쓰는세발료(洗髮料)의 일음이되고말앗답니다 이『샴프』를더운물에 적당히푼후에머리를어레빗으로 잘가려가지고 꼿꼿서부터 차츰차츰 당그면서 머리결대로 고히비벼올라가십니다 머리밋까지 올라가서는 가볍게마찰(摩擦)을하면서『샴프』한물을함빡적시여보십시요 때가말가케빠집니다 여기서 특별주의하실일은 머리를물속에잠그기전에 꼽게가리실일과 또한가지는 머리를함부로 이러저리 비비시지말일입니다 만일 그러치아니하면 머리털이바시라지든지 잘빠지는폐단이생기는것이니 각별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으시고나서는 다시더운물에 말가케 헹구실일입니다。만일시원찬케헹구시면 머리시내가덜빠지고 전것이 어느구석에든지남아잇서가지고 말숙하지 못합니다。 더운여름이나만큼 찬물에헹구엇스면 시원도 하겟지만 역시찬물가지고는냄새가 잘빠지지를아니합니다。 이러케 헹구신후에는 마른수건으로 물시긔를 말짱닥그시고 바람잘바는데가서 안저서 서늘하게말리십시요。얼른말리랴고 쟁쟁쬐는 볼볏테나가안조신다든지하면 머리가 바실어질 념녀가잇습니다。해볏에 쪼이는것도 조타는것도 어느정도의 말입니다。 다말른후에 손끄레조흔『포마드』를무처서 머리속을 가볍게마찰을하야두시면동도아니일고 또머리에영양(營養)도됩니다。『포마드』말고 동백기름가튼것도 조흡니다。



야경증(夜驚症)

問 다섯살먹은 아들에가 잠만들면 수족이 들석들석하며또 어떠때는 잠고대를해서 벌덕이러나 안즈면서『무엇이나의발을 문다고』하면서 무섭다고 야단을 칩니다 밤만되면 어서날새기를 고대하는것가트며 멧달전부터거이 매밤하오니 엇지하야 낫겟습니까 대변에는 조충과 요충이잇습니다 (李範植)

答 당신아이는 야경증입니다 본증은 네살내지여덜살의 아이에 흔이 오며 그원인은 신경질 빈혈、허약한아이에게 오며 또 자기전에 무서운이야기 흑은흥분 또과식、기생충 소변이 방광에 찻슬때도 발생됩니다 이와가티 원인이 만흐므로 그원인치료를 하여야됩니다 당신아이는 기생충이 잇스니 우선구충치료를 하시고 밤에 무서운 이야기 과식과 자극성잇는 음식물을 금하면서 다음약을 써보시요

베로-나루 〇、一五
白糖 〇、五
右一包를 臨臥時頓服

(城大小兒科 李聖鳳)

생손알는데

問 생은 십구세 미혼남자이온대 돌연자수 엄지손끄락이쑤시기작하오니 성창하기전에 살을처치방법과 치료약을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興南 一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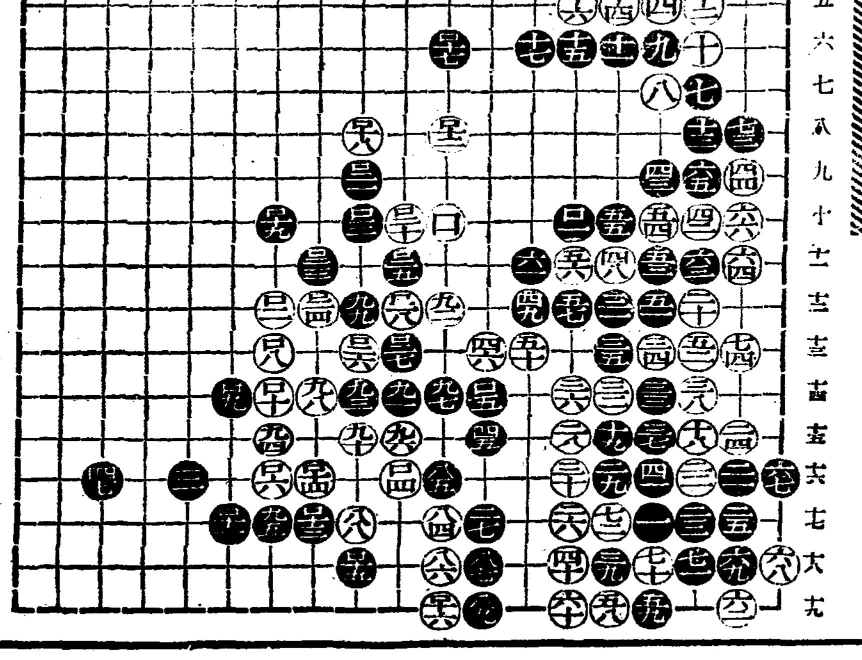
答 표조(瘭疽)가 시작되는모양입니다 붕산수(硼酸水)나 알콜로 습포를 위선하야보아서 종내 삭지아니하고 성종하거든절개하야 파종하여야합니다。그러나 이회답이 지상에 발표될때에는 발서 나섯거나 흑은파종한뒤일것가티 생각됩니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圍棋對局譜 =8=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一三 丑의十七
○一四 丑의十六
●一五 子의十八
○一六 壬의十九
●一七 壬의六
○一八 子의八
●一九 寅의十
○二〇 癸의十
●二一 子의九
○二二 子의十一
●二三 丑의十一
○二四 丑의十二
●二五 癸의十一
○二六 子의十三
●二七 癸의十三
○二八 癸의十二



蔡極文氏評日

黑이 南角喪失後로 中央延長白의 報復手段을 試用하고저하다가 自陣構內가 反成乖戾는 此亦不周所致나 原是高見이므로 置之匚地而後存을 推

此預測하노라

批評私論 (四)
科學的態度와 秩別하는 나의批評體系
白鐵

하나 여기에 對하야는 나는 이러케 對答하려고 한다! 批評은 創作에 比하야 훨신 科學에가갑다는意味에서 그것은科學에 接近시키며 科學에 接近시키는데서 나중은 드듸여文學自身의 領域을脫出하야 科學의

累積가운데 文學으로서의批評을 埋沒시키느니보다는 批評은 亦是 文學의 그 難을든것이며 文學의基本性格은 心情的이고 感性的이라는 意味에서 批評을 科學에서 隨落에서 救하야 文學그것에 奪還하는것은實로文學을위하야有益한일이 아닐가? 라고

事實나는 요즘 同僚들의批評論文을읽으면서 언제나 明徵히 느기는것은 文學을 읽는다는것보다 한科學에對한 說明을 읽는感想을 가진다는것이다! 確히緻密한 理性的追求가 아니면 到底히 理解할수업는 文學精神의 涸渴한 그文章이런 모든것은 언제나 나에게 그들의 批評이 文學이 아니고 한 科學定義와가티 생각이 되는것이다 또한 그意味에서 그批評傾向에 接할때마다 恒常느기게되는것은 今日의 批評은 一般批評과 文藝批評이 아무限界를 두지안코 混同되고 잇다는 것이다! 그것은 今日의

文藝批評이 一般으로 科學其他의 不純한 領域에 隨落되고 埋沒된 不祥한現象이 아닐수업다!

더구나 그것이 過去의 프로레타리아批評에 잇서서는 그程度가甚하얏다! 文學作品에 對한 評家의 重要한 資格을 그소위 相當히 高等한 ××主義的敎養에 두엇든 프로文學批評에 잇서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思想的敎養이 必要하고 그것이基準이되엿다는것, 그資格만 잇스면 그것만으로서 어느듯 훌륭한文藝批評家로 是認된 時代가잇섯다는것이다. 이것은 文藝批評을政治의 常識에 隨落시킨不幸한例證의 한事實이어니와 文藝批評家의 資格은 그와가튼 科學的知識과 政治的思想敎養에잇는것이아니고 무엇보다도 文學的稟質과才能과 어데까지든지 文學的敎養을 싸어가는곳에 잇다는것을 우리들은 明賞히 늣기여야 할줄안다! 詩人의 傳記를 쓰지못한다!」는 警句가 잇거니와

警句는 毅然히 文藝評家의 嚴格한 資格을 말해주고잇는듯하다! 文學批評家는 그自身의 文學事業이 그의 專門職業이며 全生活이며 全生命이다! 그밧게 僧侶또는 敎授하는 職業을 擇한후에 第二의 事業으로 文學에 從事하려고할때에 그는 文藝評家로서는 完全히 資格을 喪失한다!는것을 意味한듯하다! 그것은 勿論 單純히 僧侶와敎授뿐이아니라 一明의 다른不純한 領域의 분위기가 文學評價에 잇서 그純文學的地位를 차지함을 許하지안는것이다! 오직 文學者로서의 評家의 巨大한 信賴와 稱讚에 依하야서만 文學의 評價는 可能할것이라고 보혀진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今日의批評은 그敎師에 背叛하고 政治家로서 그리고 一般으로는 理論을 그主題로하는 科學의態度로서 文學批評에 臨하려고한다 그러하야 今日의 우리批評文學에는 文學의 情熱이 完全히

涸渴되고 다만 그조고마한 冷徹性과 小智와 冷靜한 白眼이 남어잇슬뿐이다!

大體로 文學에 잇서 그것이 創作이든 批評이든 感激을通하야 傳達되는 性質을 忘却할때에 그것은 文學으로서 眞實한 길에서 떠난것이 아닐까? 말하면 感激하든가 隨喜하든가 激憤、感慨、憎惡、讚美等의 感動感激을 通하야 接近할수업는文學을 어떠케 文學이라고 부를수잇슬까?

깨……여……지……는……奔……流

消夏雜記 여름의憂鬱
咸……興……安

「저런 비러먹을것들! 季節을저지경으로 제죽질 할것은 무어람!」

겨우 나무시니피 뽀족뽀족손아올을때든가? 實相은 두어달前 일이지만 엇그제와가티 記憶이 새로워 오는 어느날 나는 호올로 鍾路에 나갓다가한구두를 신고 파나마帽子를 쓰고 까불까불, 거리우를 제세상이나 맛난듯이 휘둘으는 모던君들과 요당 살결이 氣溫에 調和되지못해 엉성그르 冷却되여 皮膚의 光澤을 喪失한채 한결 생고사 깨기적삼을 뚫고 거리우에 그육한 살냄새를 放射하고 지내치는 『모던孃』들의 아기자기한 流線型 거름거리엔 그다지 快感을 못느기엿다.

季節은 山과 들에서 먼저오는것이 아니라 百貨店 쇼웬도에서 먼저오고 그보다도 모던보이, 모던껄들의 衣裝에서부터 먼저오는 모양이다 —至今은 여름도 한창이다 아직 참외, 수박은 흔하지못하나 그것들이 흔해저가면 그때는 발서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다.

해마다 다그랫고 나뿐아니라 누구나 다 늣기는바겟지만今年 여름도한 유달리 速히다달은것갓다.

「인제 볼로다갓군! 今年여름은? 今年여름에야 말로어되로 旅行이나 햇스면!」하는 漠然한 希望이 머리ㅅ속에 인개처럼 어리노라면 어느듯 여름은 潮水처럼 밀려들어 精神을 못채리게한다 濃綠을찾아가느니 海水浴場을가느니 有閑男女는 짝을짓는다 마는 적든 잘되든 못되든間에 그래도 一年동안 創作을 쓰노라 努力해왓다면 이 무더운 不衛生時期인 여름한철쯤은一아니 다만 몃週日쯤이라도頭腦를 休養해야 할것이아닌가? 機械도 기름을 뿌리지안코 작고 使用만하면 녹아슬고내종엔 故障이나고 부서저 廢物이 되지안는가하믈며人間에 잇서서야.

朝鮮의作家처럼 貧困한窮乏하면서도 適當한時期에 休養을가지지못한사람은 업슬것이다 作家가 避暑를 단니다거나 海水浴을한다거나 汽車旅行을 한다는것을 一種의奢侈로 아는사람이잇다.

그러나 그것은 그사람의커다란誤解다

現下 朝鮮現實에 비치어 嫁업소리 입니지모르나 作家일수록 生活이 潤澤해야할것이며 作家일수록 精神休養을 適사람의 三四倍해야될줄안다

올여름도—여름이되기前부터 馬山 釜山 咸興 平壤 元山等地의 벗들에게서 놀러와달나는 親切한편지가 이내려불우에서 제멋대로 굴를고잇는것을보면 공연이 마음이 들떠 그러다가 한참만에는 憂鬱해저바리고만다 차라리 그런편지를밧지안는것만 갓지못하다

서울에 올나온제가 그럭저럭 十年이넘는 나이면서도仁川 以外에 떠난곳은 아모데도 못가봣다면 놀나 잣비집는지몰으나 仁川도 用件으로 몃번을 갓슬망정 決코 遊興이나 休養을 目標로가지는못햇다.

말하자면 나는 旋歸에 기름이 말느듯이 기름을 뿌리자 안코 機械를 부리듯이나는 作家的機能의 기름이 발서 枯渴해버리지나 안헛나 겁이난다

이러하야 거리를거닐며 百貨店쇼웬도에서 旅行用具의陳列을볼때 海水浴用具가눈에띄일때 또다시 집에도라와 레ー붕우의 시끄러운 편지를對할때 내憂鬱은 더한층기퍼가고 넘어갈뿐이다.

예ー츠의近著『車輪과나비』(上)
林學洙

집웅미터나 地下室에사는 (精神的으로가난한) 사람에게는機械車輪을

동모(藝術을理解하는)에게는各各아름다운나비를보내노라.

愛蘭文學協會의 盟主요 알즉히 一九二三年十月 노ー벨文學賞을 바든 『예ー츠』의 最近著『車輪과나비』는 月前에야 읽을機會를 어덧다. 이것은 一九三四年 歲暮의『마밀란』版이엿다. 『窓ㅅ살에 남은詩句』『風浪과싸홈』『復活』『고양이와달』의네劇이그속에 들어잇섯다. 『窓ㅅ살에 남은詩句』는 一九三〇年十一月十七日『더블린』의『아베이』座에 上演된것이요 그다음것은 一九二九年八月十三日同座에서 그다음것은 一九三四年七月三十日 그다음것은 一九二六年 五月九日 各各同座에 上演된것이다。그中『窓ㅅ살에남은詩句』와『風浪과의싸홈』은 『브레일海邊에서』『그늘진물』『心願의나라』로부터 그의劇中가장 重要한것이엿다.

이제이것을紹介하기전 잠간蛇足을加하야 그의거러온바 文學的行程을 進展식히게한 環境及그의性格을 二百字로 적어보려한다。諸君으로서먼저 愛蘭의民族史를펼처보라。七世紀에 亘한追放과壓迫、헤일수업는 暴政과헤일수업는 流血史。한荒廢한섬南端으로 쫏겨올린 그들에게까지 異民族異宗教는 악착히도侵犯하지안헛는가? 그들에게는곳업는悲嘆과失望이잇섯다。그러나 밧갈고 고기잡기로일삼는 素朴한그들에게는 草木이茂盛한갓업는平原 군데군데黑다이야처럼빗나는湖水와 金모래조약돌을내던저다쓰려가는 기슭과기슭이뻐다려잇섯나니 이해지는 西쪽나라黃昏이면妖精시ー群이 나무사이를날르고 바다가운대에는마나난먼길리들곳을달리는 쿠홀린의 말발굽또는 피族의大戰—이것이모다그들의외오고傳하야 爐邊에 밧이랑에 또는漁船우에 그들의가슴뛰게하는것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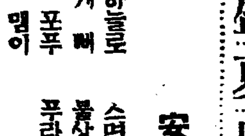
實로愛蘭은 神話와傳說의나라엿다。이리하야 政治的으로는壓迫이甚하고 生活上으로는 極度로極度로 缺乏한—即現實的으로 餘地업시虐待바든그들은 어느덧、차라리이괴로움과슬픔만이만흔現世보다도 마나난이、쿠홀린이、—그英雄과妖精들이노니는 늙지도안코죽지도안는 永遠의靑春의國을 憧憬하게되엿다 이리하야 그들에게는 現代의文明도 그들의 아름다운 生活을 破壞하는사나운것이엿스니 예ー츠의短詩『이니스프리湖의섬』는흙은 漁夫의瞑想」은 塵間의消息을 말하는것이다。

이에잇서『슬라이고』鄕에자라그風土 그들의生活 그들의傳說에 情들고 成長함에따라『올라아라』의政治運動에 가피共鳴하야 먼저『런던』에詩人協會를 組織하고 精神的自由를 爲하야 民族文學의樹立을 率先指導하기로 覺悟한그 題材를 口碑傳說에取하야 獨特한 愛蘭的想像과 靑年的哀傷잇는 筆致로一八八九年『어시인의放浪』을 世上에 무릇스다 이야말로 愛蘭文藝復興의 嚆矢的産物이요 그 靜的이요 繪畵的이요 想像의生生함으로써 키ー츠의『엔디미온』을 생각케하는 그의出世作이엿다。그後그의中期의詩『葦間의바람』等은 그를 한神秘家로 看做케하얏스며 漸漸老境에 이를사록 色彩가 濃厚하야지는 夢幻과 呪法으로하야 老年의그를 痼疾인神秘主義者라하야 보다적게評價하는사람도잇스나 이는決코 一朝一夕의 일이아니요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그가 東洋思想特히 佛敎思想에 莫大한 興味를 가지고 研究하얏스며 接神學에도垂誕한것으로부터 由來하는것이다 文學運動家로서 詩人으로서大業績을남긴 그는 劇에잇서서도 亦是큰功獻을 남겻스니 一九〇〇年『그늘진물』을 쓴때부터서그의 興味는 劇으로 쏠렷다하며 더블린에『아베이座』를 設立함으로서 愛蘭國民劇協會의 宿望은 達成되엿다。爾來 그의劇은『아베이座』에서만 上演된것이 아니라 歐米各國에서도 劇先上演하얏스니 그의 劇의 特徵을 들면商業的 劇을 蔑視하고 적어도愛蘭民族은 純藝術을 理解하며 口碑傳說을 通하야 그들祖上의 偉大한 英雄이엿슴을 깨닫어야 할것이라는것이며 제스취보다도 台詞를 重要視하고 景場은 簡單히 全體的情緖를統一함에잇섯다。그리고이『風浪과의싸홈』序文에도『나는이것을 散文으로 散作하얏스되 보다더簡單히하고 상상적암시를 떼쓰와 歌手와 樂士에게남기도록 하얏다。』라하얏스며 數次『나는大衆的舞臺에 맛도록쓰지안는다。』라고 말한바와가티 老熟함에따라더욱더그는 舞臺配置를 單純히 登場人物을적게함뿐더러 音樂的價値를 重視한다。

漢詩
綠陰 押韻
桐岡考選

佳作五之八 忠州郡 李起尙

殘紅纔歇綠初成
幕地遮天晝復晴
向日樓臺濃欲滴
臨風院落掃還生
何人不感淸凉味
擧世渾無苦熱情
似惜詩家餘興少
好音處處送流鶯



盛夏風景 (四)
安夕影

하늘로
길게 뻐
든 포푸
라가 몹시 고독해보인다 맴이
가 와우럿스면 조켓다
네가 이땅에서는
영원히 손님이다
이땅에 흙이잇자
그 흙이 胚胎한 나무들이 다
ㅣ업서지고 너만 무성하여도
이곳 사람의 눈에는 영원히
손님이다
그러길래 네가 고독해보인다
어서 맴이가 와서 우러주엇
스면 조켓다
뿔상한 포푸라! 숭거운 포
푸라!
◇
저기
내일 모래면 관속에 드러갈
늙은 여인이
舖道에 주저안저 더운숨을도
르고잇다
별서 이세상은 그를 오예(汚
穢)와가티 버렷는지
한사람도 그를 부축해 이르
켜 주는이업다
내여버린 헤플어다
그는 얼마나
그남편의 발길에 거더채이고
그는 얼마나
그아들 딸들에게 핀등이를맛
고사러왓슬까
그래 그는 지금 자긔가 이
세상에서 내여버린 老嫗라하
여도 그남편의 령혼이 조흔데
롤가기를바랄것이요
그아들딸들이 이세상에서 빗
나는사람이되고
또ㅡ 이땅의긴ㅡ날을위하야
아들과딸들을만히 나키를바랄것
이다
그러나 지금그의게는 집고이
러설 막대기한개도 업다
오ㅡ 지난날 내어머님을생각
하니 눈물이난다

『엑스프로아라2號』의 成層圈探險報告
趙永弼

昨年 米國서 擧行된 氣球『엑스프로아라2號』(探險者二世號)에 依한 成層圈上昇의 成果發表는 各方面에서 期待되고 잇든바 近者 米國의 首府『와싱톤』市의 哲學協會의 會合에서 그 探險에 關與한 사람들에게 依해서 詳細한 報告가잇섯다。

成層大氣의 電氣傳導度

米國 地理學協會及 米國 陸軍航空隊의 成層圈探險氣球『엑스프로아라2號』는 『오ー빌·안라손』大尉와『알바ー트·스티븐스』大尉를 태워가지고 七二、三九五피ー드에이르는 노피까지 上昇하야從來의 記錄을 更新하엿는바 그때 그들의『곤도라』內에 積載하고간 觀測裝置中에는『와싱톤』市『카ー네기ー』研究所 地球磁器部의기사『 』氏가 依賴한 大氣의電氣傳導度를 測量하는 機械도잇섯다。

그것이 自記한結果를 詳密하게 硏究해보니까 大氣가 電氣를 傳導하는 容易力은 地上으로부터 六萬피ー드의 노피까지 一樣의 比率로 增加해서 거긔에가 最大하게되는데 地上의 約六十倍이엿다。

그러나 六萬피ー드以上의 高所에서는 傳導度가 增加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도리혀 조곰식減少하고잇섯다。

이 發見은 宇宙線의 研究에 對해서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진것이다。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二萬피ー드以上의 高空에는 宇宙線의 輻射가 空氣의電離의 主要한 原因이라고 생각하고잇섯든때문이다。

成層圈大氣의組成

米國 量度標準局의『쉐파드』氏는 成層圈大氣의 組成을 報告하얏는데 成層圈의 大氣中에 含有되여잇는『헤리움』의 分量은 重力의 作用에 依하야 氣體의 分離가되면서 가벼운 氣體는 우으로 올려간다는 從來의學說로서는 說明이 되지안흠만치매우 多를이라고 陳述하엿다 即 成層圈에는 大氣容積百萬에對해서『헤리움』의 三百의 比率로 存在하고잇다(地上에는 大氣容積百萬에對해서 겨우 五바게업는데)勿論 氣球를 膨脹식히는데 쓴『헤리움』瓦斯가 成層圈大氣의『헤리움』中에 半分間混入되엿다고하드래도 이것을 測定할때 미리부터 이러한 不正確한것을 全部除去하엿다 探査한注意를 다햇섯다 그러니까 이分析의 結果는 信賴할만한것이라고 報告者는 附言하엿다。그리 實驗材料로 採用한 成層圈大氣中의 窒素瓦斯와 酸素瓦斯와의比率은 豫想했든 比率과의 얼마差違가업스다 이差違가 엇지서 생기는것인가는 아직도 그들의 研究中에잇슴으로 理由는 未判이다。

氣球의强度와性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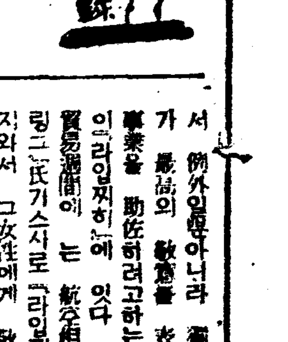
亦是 米國標準局의『라카만』博士는 이成層圈氣球의 强度와性能에關한 研究를 報告하엿다。그들의 成層圈氣球『엑스프로아라2號』는 空中에 氣球가 破裂되여『까스』의 自然爆破가 된때문에 墜落하고 搭乘者들은文字그대로 九死一生햇는데 이러한일은 絶對로 避하기위해서『엑스프로아라2號』의 氣囊을 만드는데는 새로운 方法을 찻것을說明하엿다。

今回의 歷史的인 成層圈探險에잇서서 學術界의 期待가 버서진 큰遺憾은 携行한 氣象圈自記機械가 故障이생겨서 上昇의 거의 中途에서 停止된것이다。그것이 記錄한 最終의 溫度는 攝氏 零下二十度이엿다。

地上觀測

米國海岸及 測地學協會의『헬音』氏는 地上에 設置한 諸所의觀測所에 三角測量에依한『엑스프로아라2號』의 上昇高度를測定한 結果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이會의司會인 米國地理學協會會長『길버ー、그로ー브』博士도『探險으로서의 成層圈 飛行이라는 題名으로 興味잇는講演을하엿다。——(寫眞은『엑스프로아라2號와 搭乘者一同』)



爆彈排除의 地下室發明

【라인찌히『美國聯合通信』】婦人이 家庭外의 일을 하는것은 禁斷되여 잇는『나치스』獨逸에서 例外일뿐아니라 獨逸政府가 最高의 敬意를 表하여그 事業을 助佐하려고하는 女性이『라인찌히』에 잇다 五月初旬『리ー트버』는 航空相『게ー링그』氏가스사로『라인찌히』까지와서 그女性에게 敬意를表하엿다、女性의 일홈은『마르타·뮤ー르가ー』。彼女는 鋼鐵技師로서 爆彈、毒瓦斯排除의地下室의 設計에 成功하야 때마침 委進의 女性을 爲해서 大氣煙을 마하고잇다、彼女가 發明한 爆彈、毒瓦斯排除의地下室은『브이리ー』의 形容한 强度의 鐵管으로 製作되여 一旦 攻襲이 잇슬때는 그속에 드러가서 문을 닷더버리면如何한 强力의 爆彈도 破壞치 못하고 室內의 空氣는 自然淨化되고 毒瓦斯의 侵入을 許하지안는 設備가 되여잇서 永久히 하지안는 至極히 便利한것이다

讀者社交室

▲靜人 주상어머니차저주시오 성은리씨 년령은四十六歲 출생지는 려주군 부차위친가는파주인데 작년음력시월에 화ㅅ김에 집을나가신후에는 생사를모르오니 독자여러분중 아시는분이게시거든 좌긔주소로 통지하여주시면 감사하겟나이다 저는 병이나서 약방에도 못잇고 집에 와잇사오니 속히 알려주시기바라나이다 驪州郡加南面金塘里 諸俊相

▲日間紙上에 連載되는童謠는 먼비닭이『作品金哲洙氏 現住所를 發表하여주섯스면感謝하겟습니다 北便 顧人生

▲農村啓蒙運動에 힘쓰시는諸氏여! 本人은 今年某中學校를 卒業한靑年인데 農村研究와및啓蒙에一步를 것고십흔斷然한決心下에 無報酬로獻身的敎鞭을잡고 십허하나 萬若諸氏가經營하는學院或學이나夜學이나中에敎員이不足하거든 生에게次의住所로通知하여주십시요 될수잇스면 山間地帶가 더욱조켓습니다 平南鎭南浦德洞德里九二 洪禎文

▲京城에게시는 金昌善、崔斗煥兩兒 오래동안 消息업시 無心히지내온 이兄을 過히責하지말어주세요 過去二個月間은實로 眼界閉하여잇섯습니다 風便에 듯사오니 崔兄은 이兄을 몹시怨望한다고하오니 모든것을寬大히 恕諒하세요 나의意志마는 變치안흘것입니다

▲저는 戲曲을 좀硏究해볼랴니다 恒常 이方面에留意합니다 허나원악 不幸한 現實에대하여나 그다지 훌륭한靑年을 對하지못합니다 어느先生님이든지 이方面에 關한書籍이有하거던 左記住所로 通知만해주시면 送料는얼마던지 自擔하고빌어보고 곱게返還해드리겟습니다 元山府本町五丁目三三 金晋勳

▲여러先生님中에 童謠童話集『お月さま』(著者不知)를 가지신분이나 發賣所를 아시는분은社交室로通知해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이冊은 어릴때 先生님에게어더듯든것인데 일허버렷습니다 (迎日 求冊者)

▲讀者諸位여 今番저이들이朝鮮文藝復興을 目標로 文學研究會를創立하고 將次文藝誌까지發行하고저 準備중이오니 文藝에 뜻이게신분들의 만흔편달과후원을바라와 全朝鮮的으로 會員과 作品을 募集하오니 만흔喝와동의의뜻을 알니여주신다면 細細히通知하겟나이다 더욱저이들의 創立에뜻으로 文藝品考評과他의 問議도應하여回答하여보내나이다 平壤府大察里一六三番地 金兪植

▲六月二十六日午後十時半頃에 通義町 中國料理店洪順樓압헤서 幼兒帽子(靑色에白線이有한)帽子 拾得하야 保管中이오니 遺失하신분은 社交室을 通하시든지 左記場所로 通知하시면 還送하겟나이다 苑西町四ノ二六 洪白石

▲滿州新京서헤여진 韓英鮮君 金永煥君! 住所를알고자하네 나는身病으로目前에臨迫해서 그리고어떤讀者시든지 右記人의住所를아시거든 本欄을通하야알녀주시기바랍니다 京城府阿峴町五八六ノ一 朴

▲鄕人 慶北榮州郡讀者諸位께 特히拜問하오며 健康하시옵소서 옵니다 現在本人에게와서 留連한지三年이나되는데 當年廿二歲의 靑年으로『金甲진』이온데 昭和九年二月分出家하여離鄕後 故鄕消息을全然不知이라 老年에게신母親과親戚도잇스나 出家以後에尙今까지 榮州에게신지 或은他處로 移舍하엿는지몰라 左記의主人에게 아시는분은通知하여주시면感謝하겟슴니다 慶北榮州郡豊基面于今里 母安東權氏六十一歲 兄金岩伊三十八歲 妹夫朴京奉(同郡同面宮두독이잇섯다고) 勿論親戚이보옵고 通奇하시면 이우에더한榮光이업습니다 讀者諸位께옵서 右記人을아시는분은 其住所를下記本人의住所로 알녀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平北妙香山普賢寺上元庵 尹義峰

▲누구시든지 朝鮮日報昭和十年三月三十日부터 四月五日까지사이에揭載된徐椿氏論文 獨學勸奬文을오려서 左記本人게로보내주시오면薄謝를드리려합니다 京城府東崇町一三〇ノ三七號 湖天學方 紹雲昇

▲讀者諸氏께告함 生이雄辯에 뜻을두고 京城府內에서 雄辯俱樂部를組織하야 研究하고저하오니 有意하시는同意者가 게시면 左記住所에 通知를願함 京城府樂園町一六九 黃[illegible]宛

▲東京에게시는 中學生諸兄이시여 安寧하십닛까 弟는當年二十歲된者이오나 昨年에市內某高普三學年까지다니다가 家庭形便上中途退學을하엿습니다 그러나 幸으로다시憧憬의工夫를 繼續할 環境은도라와사오나 不幸히도朝鮮內에서는 補缺이업사와 東京이라도가서 期於코工夫를하고저하오니 眞若兄께서다니는시學校나 그러치아니하오면 補缺生도募集하시와 補缺規定이잇사옴거든 規定書와共히 下敎하여주시면 弟에게再生之恩이되겟습니다(志願科年은四學年입니다) 京城府樂園町二三八 朴勝基方內 金鼎律

▲書店을 經營하시는諸先生님께問議하나이다 獨逸語自習書로서『한글』『朝鮮文語讀』附한것이 잇스면 그册名과發行所著作者價格을 本社交室로通하야 下敎하심을伏望하나니다 直接本人에게 右을 通知하야주시면더욱感謝하겟나니다 盛岡市新庄町三ノ長內久子方 尹宜鼐

▲讀書家諸氏에게 一言합니다 本人이月刊雜誌 四海公論에서諸氏의創作을모주러 小說合本을 만들고저하는中不幸이도 昭和十年十一月號와 今年三月號를 求하지못하얏슴니다 讀書家諸氏께서 이사람의事情을보아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면 代金으로보내든지請求하시는대로 應하겟습니다 (黃海道吾羅市 成日寬)

▲朝鮮發明協會의住所를 아시는분은 本欄을거처 下敎하야주시면 大端感謝하옵겟습니다(朴生)

▲讀者諸氏에게 問하옵니다。大正七年陰四月二十日이 陽曆으로 何年何月何日何曜日인지 讀者社交室欄으로 寄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靑里一讀者)

▲韓龍雲先生의 住所를가르켜주시오。나는文藝에 趣味를둔靑年으로서 佛敎僕關에드러가文化事業을 하고시픈대 適當한자리가잇스면 採用하여주시오 (咸北城津郡鶴中面水洞申敏澈)

▲劉樂鎬氏 傳言에依하오면木浦近處에서사시다하옵는대萬一此紙를보셧거든速速히 알려주십시요 京城府敦岩町四二四의六五 劉福壽

新刊紹介

▲復活運動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五丁目七九 復活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五錢(送料共)

▲幼年講報 六月號 發行所 平壤府西城里一〇ノ二ノ四九 一千동무社 振替京城一八七一〇番 定價十五錢

▲中央 七月號(內容)地中海의暗雲、英米露의極東政策、經濟外的强制의問題、銷夏隨筆、鄕校財產合理的利用策 나의回想 第五回모스크바의印象‖呂運亨、入選實話—젊은男便의秘密 小說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一一一 朝鮮中央日報社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金剛山 第十號 發行所 京城府樓下町七七ノ四 金剛山社 定價十錢

▲朝鮮興信報 第七十三號(月三回) 發行所 京城府旭町二丁目一〇 朝鮮興信所 定價一年六圓

絢爛한天分의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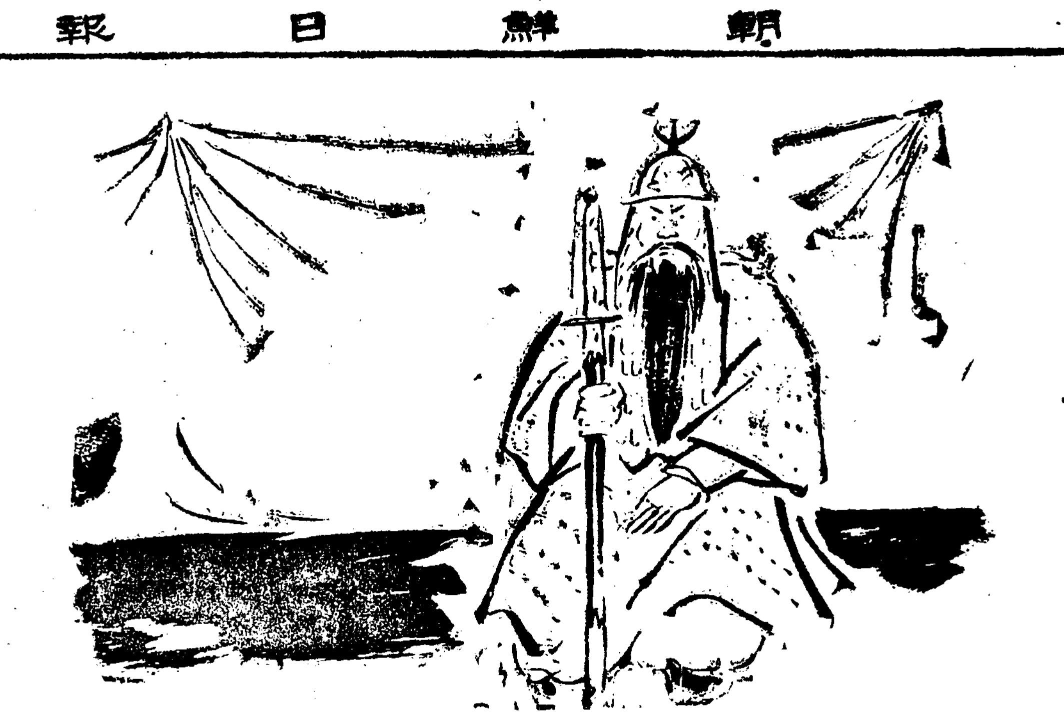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連載野談 (五三)

布衣記

申鼎言 作 / 金龍超 畵



여전담은사양(千萬)

못박게 서경 절도사의 장계를 받든 조정은 크게 놀래엿다.

고종황께서는 즉시 문무제신을 모으시고 장차 어찌 조처할것을 물으섯다.

여러 조신들도 중지에 당한일이라 조흔 계교를 얻는 말하지못하얏다.

그러는중 또한 서경 절도사로부터 몽고원수 진합의 글을 올렷다.

왕께서는 급히 글하는신하를 명하사 펴어보게하시며 곳글에 하얏스되

『거란이 매양 불칙한 생각으로 작란을 일으키어 우선 귀국에서 그침범을 당하얏거니와 우리나라 역시 그해를 바돔이 적지아니합니다. 그럼으로 여게 소장이 왕명을 바더 본국군사 일만명과 동진(東眞) 군사 이만명을 거느리고 이곳까지 온뜻은 온전히 귀국과 힘을 합하야 그 화근이되는 거란을 평정하기를 위함이나 왕정성을 기피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얏스니 그글의 뜻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업는듯 하얏다.

그러나 이것이 한 계교속이 어닌가하야 조정의 의론은 여전히 어지러웟다.

이때 김부원수가 자리에 일어나 왕아뢰 머리를 쪼으며

『몽고군이 설사 계교로써 그 글을 보냇다할지라도 그것은 계교로써 계교를 막어야할것이오 참으로 진정이라하오면 그뜻을 물니치는것이 도리혀 화근을 사는것이오니 우선두나라 정령이 모와서 의론한후 뒤일을 결정하자는뜻으로서 대답하고 만일의어떠한 경우에 응할것을 준비하는것이 사리에 맛당할것을알외오』

하면서 곳 진합의 글을 대답하야 줄것을 주장하얏다.

이에 여러 조신들도 그 의견이 매우 올타는 말로써 김부원수의 주장을 도워 도합 왕게 알외엿다.

그래서 왕께서는 김부원수로 하야금 접대사(接待使)를 삼어 서경에서 진합을 만나게하시고 도원수 조충은 대군을 준비하야 뒤에서 그하회를 경계하기로 작정한뒤에 먼저 서경 절도사로하야금 진합을 마저 드릴것을 명하고 진합에게 그뜻을 알니엇다.

이에 김부원수는 날낸군사멧사람을 뽀바 호위병으로 데리고 ㅡ곳 서경에 득달하야 진합을 기달니엿다.

진합이도 역시 군사멧사람만 데불고 선바게 일흘새 김부원수는 홍복을 가추고 성문을 열고 나서 진합과 서로 군례로써 대면하얏다.

그런데 진합이 김부원수를대하자

『아아 수염! 수염!』

하며 우선 김부원수의 수염을 말하는중 은연히 그가 질니는양이 보혓다.

원래 김부원수는 세장이 구척이오 체격이 장대하야 누가 대하든지 그위풍에 고개가 숙여지지 아니하는 사람이엇섯다.

그런중 특히 그 구례나루 수염이 우호로는 좌우로는 코밋을 가득히 싸고 미드로는 그 기리가 배꼽아래에까지 이르렷다.

그래서 김부원수가 평소에군복을 입을때에는 그 수염의중간을 다서 좌우로 종을이난위워고 선뒤에야 비로소 군복을 입엇다.

김부원수는 사람을 압도하는 풍신을 가진중에도 그 수염이그 위풍을 한칭더 놀나웁게하는바 지합도 그수염의 위풍에 먼저 긔가 질이엿든것이다.

그런데 진합이 김부원수와군례로서 상면 한뒤에 김부원수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르쳣다.

이때 김부원수는 손으로 수염을 동그려캐하야 보엿다.

그것을 본 진합은 다시 손가락 셋을 쫙빼처 내밀때 김부원수는 다섯손가락을 다 빼치어 내밀엇다.

그런뒤 진합이 또 다서 군복소매를 훌훌벗, 김부원수는 손꼬락으로서 입을 가르첫다.

것해서 그광경을 보는 군사들은 그뜻이 무엇인지 오히 괴상히 생각할뿐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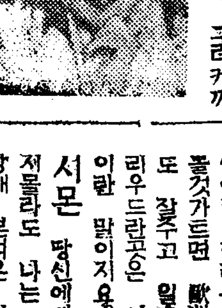
娛樂

不平이 非一非再 怨府의 枌林
名優의 暴露座談會

出席者 샤-르르·뽀아이에、말레네·딋트리히、말타·에겔트、리리안·하베이、시모네·시몬、콘랏드·파이트의六人

파이트 자 지금부터 『[illegible]렌드·오브·무뷔』誌에서 主催한 『헐리우드에 원망이 가지가지잇다』라는 題目아래 座談會를 열기로 하겟습니다. 죽 돌라 보니 뽀아이에君을 빼노코 부인네려분은 따각각 헐리우드에 對하야 한마듸 말씀이 엽지안할러이라고 생각됩니다. 不平이나 感想이나 忌憚업시 말슴하야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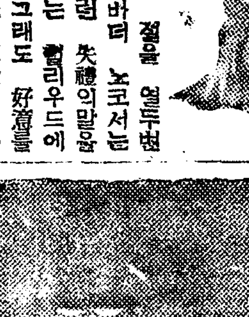
뽀아이에 이건 좀 잘못되얏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저 헐리우드에 對한 座談會라기에 出席하얏는데 그러케 된다면 多少 困難합니다. 나로말하면 現在도 헐리우드에서 相當히 活動하고 아프로도 여러가지로 그德澤을 입어야만 되겟습니다. 그런데 이런 會合에를 出席한 罪로 도리어 헐리우드의 원망을사는날에는 첫재 經濟的으로 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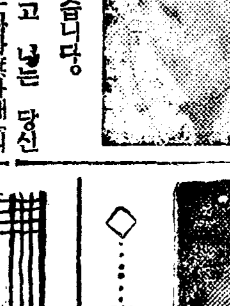


파이트 뭐, 뭐, 그러케까저안가도 조흡니다. 지금당신어 經濟的으로 활약이라고한그 뵈입니다. 당신이 헐리우드에서 活動하고잇는것은 조흔일을 하겟다는 良心的 善心으로보담 돈을 만히 벌겟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참말은……

뽀아이에 그러케 말하면 그러치요. 조흔일과 돈 벌이가 똑가티 간다면 아모 問題가 업겟지만은 그것은 不可能하니까요. 結局 당신의말파가리 됩니다. 그러한 배人심아래 헐리우드에 일을하고 좋것가트면 歐洲와 달리서돈도 잘주고 일도 편하고 헐리우드란곳은 이세상의 天國이란 말이지요.

시몬 당신에게는 天國일는지몰라도 나는 이번처럼 속상해 본적은 업서요. 뭐라고 사람을 치켜세우고 또 멀리 歐洲로부터 벌려따가 노코는 헐리우드에 到着하자마자 네얼굴은 아메리카에 맛지안느며 네얼골이 어떠니 뭐듣지용 契約할때는 절을 열두번씩해서 쌔인을바더 노코서는 새삼스럽게 그런 失禮의말을 한단말야요. 나는 헐리우드에 오기전까지는 그래도 好意를 가젓섯는데 아조 고만 실증이 낫습니다. 돈을 얼마를주든지 다 귀찬습니다.





하베이 하이고 남는 당신이 病으로 『두나라旗아래』의 役을 콜벨氏게로넘긴줄만 알엇더니 정말 그랫섯구먼요. 넘어하는데요.

시몬 병이라면 병이 아닌것도 아니에요. 그러치만 첫재 리유는 역시 말습드린그런까닭이겟지요 나로서도좋알기는 어렵지만……

하베이 헐리우드란곳은 無責任합니다. 위선 나를 두고 보십시요. 『會議는 춤춘다』가 조화다고 불러준것은 고맙지만 내보내는映畵마다 이거고 저거고 脚本이 拙劣한것뿐이라 모도 『會議는 춤춘다』의 亞流가 아니에요? 아조 어떠케 할수업거든요. 契約期間中에그저 신부름을 안 시키면 損이라고 연달아서 일이지요. 그러고보니 스타ㅡ란人間이아니고 아조商品이지요. 그러고서 조흔映畵가 나올 까닭이엽습니다. 그러케 다른映畵을 차지고도 사람을 부릴줄모르니 참 섭섭치 안해요? 시몬씨나 내게比하면 에겔트氏는 恰例한폭입니다

에겔트 아이 어째서요?

딋트리히 그려코 말고요 會社에서 悪宣傳을 하기전에 맛당한 脚本이 업다고 고만 빼저 달아 난 송씨는 아조 묘하거든요

에겔트 그러케 말슴하는 당신이야말로 이번에 참말 팽장치 안햇습니까? 떠드다나 『호텔·임피리얼』을 撮影하다 말고 뛰어 나오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시몬 하베이 참말 그래요

파이트 우리들 俳優는 불나오고 들어가는것이 큰일이야

보아이에 거긔는 고만 나도 고패를 떼엇습니다 會社에서도 困境하야 헷습니다 相對役의 나아말로 아조 後悔하지요 미치 내소와 마른 못난이 남편처럼……

파이트 이제부터 歐洲스타의헐리우드行防止法案을 맨들어 英佛獨議會에 提出합시다 그래서 우리의前途有望한스타ㅡ들을 헐리우드漢金의誘惑으로부터 救하야 내는것이 目下의最大急務가아니겟습니까?

一同 하하하하

寫眞은 上記六名

新作짠·발잔 佛映畵 파리나당의 大作 『레 미제라블』에서 짠·발잔으로 扮한 아리·뽀이니 그映畵의監督은 레이몬·베르날

★……美人姜太公 『콜롬비아』의 스타 마리안·마슈는 낙시ㅅ대를 둘러메고 고기잡기에 汨沒하다고

映畵短信

國際聯盟에서 兒童映畵製作

【쥬네브同盟郵信】 어린아이俳優가 나오는映畵는 만치마는 아조어린아이들을爲한 映畵는적다 이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쥬네브國際聯盟兒童福祉委員會에서는 映畵進出을 企圖하고 二年間에 百本製作의 計劃을 發表하얏다 製作은 各國에 委囑하고 題材에는 例컨댄 丁抹은 한스·안더슨 獨逸에는 그림 和蘭에는 한스브·링카 伊太利에는 피노치오等의 童話를 取할方針이다

★曆★

七月二日(木) 建甲午五月大(十四日)

乙酉·水·斗·平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朝鮮聲樂研究會總會光景

一日 (水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中央保育童謠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一) 『昆虫의生活』 金秉河

◇同八時 中繼農漁노리風景(全國中繼)『漢江江邊으로부터中繼』

◇同八時二〇分 唱劇 春香傳 吳太石 外

◇同九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제비가 四、小春香歌 趙牧丹 李竹葉

◇同九時三〇分 管絃樂 (레코ㅡ드演奏) 一、組曲『火組』…스트라빈스키作曲 序曲 火鳥의춤 公主의춤 카스체이王의춤 자장가 終曲 二、前奏曲 A 폴랫드長調…쇼스라코윗치作曲 필라델피아管絃團 指揮 스토코우스키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獨唱과齊唱 獨唱 中山楣子 齊唱 미도리會會員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 豐谷榮

◇同六時三〇分 講演 中村榮孝

◇同八時三五 (東)映畫劇 小林十九二外

◇同八時五〇分 (東)謠曲 近藤乾三外

二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二、唱劇調『春香歌 獄中歌』 三、赤壁새타령 鼓手 趙千洪 元弄月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어린니와녀름誘惑』 普專敎授 金興濟

◇同六時三〇分 童話『쥐나라』 韓相震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X光線이야기』 醫專外科 張起呂

◇同八時 講演『滿洲國과朝鮮人』(一) 鮮于全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崔貞子

◇同九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孔明歌 三、기ㅡ나리 四、寧邊歌 五、방아타령 金秋月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諸點紅 金鳳仙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〇時五分(東)喜劇 曾我逎家五一郎外

◇同六時 童謠 林光子 外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大)하모니칸 獨奏 田中旭嶺外

◇同八時二〇分(東)琵琶 春日도모 社中

◇同八時五〇(東)小唄 橫山엔다쓰

◇同九時一〇分(大)連續漫談 杉浦에노스게

三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 『안나·칼레니나』 徐相弼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洗濯과染色』 高工 韓辰範

◇同四時一五分 野球試合實況 『都市對抗野球朝鮮第一次豫選』 ㅡ京城그라운드에서ㅡ

◇同六時三〇分 少女劇 『꿋업시가는배』 一景二場 嚴達鎬作 配役 정애…鄭信恩 그의아버지…張基成 옥희…金鎭叢 그의아버지…白帆舟 그의어머니…田메돌 옥회동무ㅡ…鄭順永 同二…田桂玉 同三…崔点姫 어린이·드라마會 指揮 嚴達鎬 伴奏 어린이·드라마伴奏團

◇同七時 課外講座(三)『녀름엔왜밤이짤븐가』 中央高普 沈亨弼

◇同八時 講演『滿洲國과朝鮮人』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興夫歌 鼓手 宋萬甲 丁元變

◇同九時 漫談『꿈에본金삿갓』(笑) 申不出

◇同九時三〇分 哀戀曲外 一、哀戀曲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興打鈴 五、五峰山歌 六、梁山道 高一心 細笛 姜龍洙 奚琴 李忠善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箏曲 伊藤靜子外

◇同六時 (名)이야기 有光敏三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豐谷榮

◇同七時三〇分 (仙)講演

◇同八時 (東)物語 岡田嘉子外

◇同八時五〇分 (東)常磐津 常磐津若太夫外

◇同九時一〇分 (大)漫談風景 橫山엔다쓰 杉浦에노스게

映畵界挿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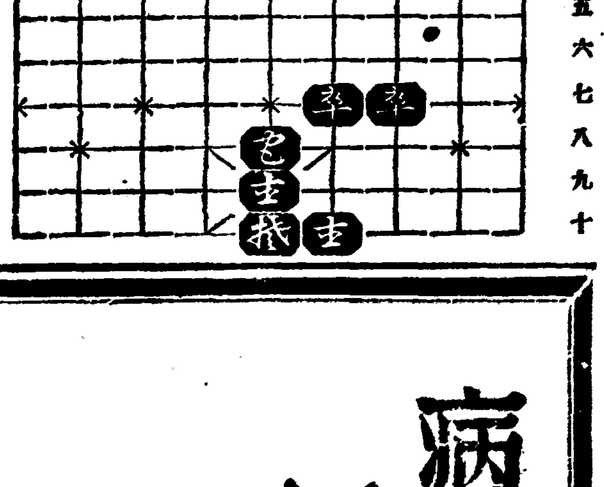
獨身俱樂部 犯則者嚴罰

헐리우드 獨身俱樂部의 名譽會員이어든 짝·오키도 고만 不幸이랄찌 어여쁜색시를 마저 장가를 들게되얏습니다. 그의 안해는 벤·비덴이라는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卽刻獨身俱樂部로부터 除名處分을바든뿐이 아니라 嚴重한 會則에依하야 三百五十弗이라는巨額의 罰金을 무는 同時 新郞新婦가 짝을 지어가지고全會員의 하나하나를 그집으로 차저 다니면서 未安하다는인사를 하게 되얏습니다. 그러한 嚴罰을 바드면서도 그분은 大端히愉快한 氣分으로그 짝이야 장가드는 오력으로도 넘법하다고 이약이하고 잇습니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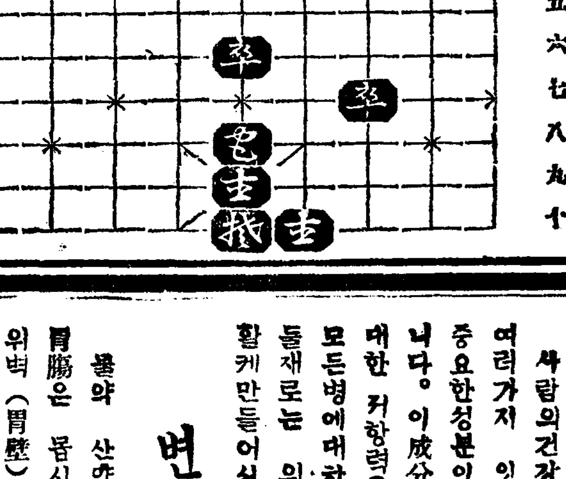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金于石

◀百三十手圖▶



◀百四十手圖▶

己四卒ㅡ己三 / 丁一包ㅡ己一 / 丁七卒ㅡ丁六 / 戊二漢ㅡ丁二 / 己三卒ㅡ庚三 / 戊三象ㅡ辛五 / 丁六卒ㅡ戊六 / 辛五象ㅡ己三 / 庚三卒ㅡ庚四 / 己一包ㅡ丙一



病을곳치려면…먼저 胃腸을튼튼하게하자

病弱體에는食慾과便通을좃케하고胃腸을튼튼히하는「비다민B」라는榮養素가부족되여잇는쌔닭으로 病이오래살게되는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분을보급하시는것이急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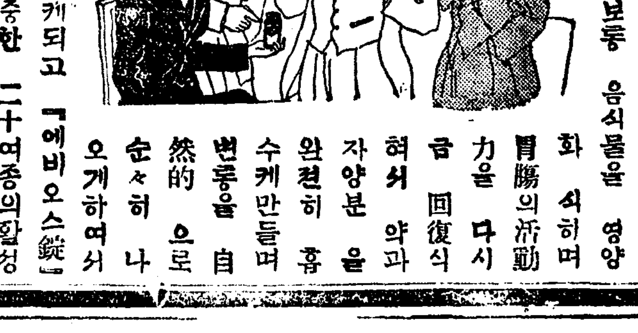
RB-K-20

사람의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가지 잇스나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성분이「비다민B」라는것임니다. 이成分은 첫재로 모든병에대한 저항력(抵抗力)을 돗아주어서 모든병에대하야 예방과치료가되며 둘재로는 위장(胃腸)의活動力을민활케만들어서 먹은것이 보다 피와살로가게하며 자연적으로 변통(便通)을조케하여서 모든위장병을 미련에예방하고 근본적으로 곳처주는 신기한영양소(榮養素)이오니 이종유의약중 第一진정한「비다민B」를 만히 포함한麥酒酵母劑「에비오스錠」을 연복하시는것이 건장에읻으는 第一것가운길입니다.

변통이자연히나오게됨

물약 산약으로 병환에게신분의 胃腸은 몸시도 약하게되여잇스며 위벽(胃壁)은 약의자극으로 말할수업시 헐어잇기쌔문에 눈배속이 거북하고 변통이 조치못하며 구미가 돗지안음으로 아무런자양잇는음식물도 잘잡숫지를못하여서 몸은 점々 쇠약하여가며 병세도 더욱 중하게되여갈것입니다. 그럼으로 음식물도 소화조흔것을차저서 늘 밈이나 죽을드리게 됨으로 음식물을보기만해도 구역질을하시게되나니 이것은 胃腸의 활동력이 약하야저서 약과자양분을 완전히 몸에흡수치못하게되는 쌔닭으로 그런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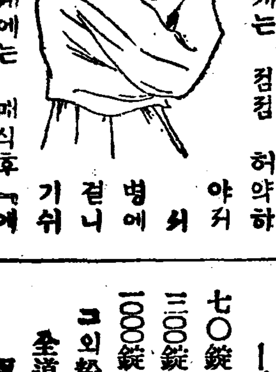
즉 건강한쌔는 물론이요 허약하신쌔에는 평시의 몃배나「비다민B」라는 영양소가 필요한것이니 권위잇는 영양학자와천눈의사가 늘 추천하시는바와갓치 强力비다민B劑에비오스錠을 연복하시기바라오며 아모리 몸이 약하게 되신이라도 안심하시고 복용할수 잇스며 엇더한약과도 갓치병용하실수잇스니 차々입맛도돗고 구역이가란저서 보통 음식물을 영양화 식히며 胃腸의活動力을 다시 回復식혀서 약과 자양분을 완전히 흡수케만들며 변통을 自然的으로 순々히 나오게하여서 氣分도 상쾌케되고 「에비오스錠」속에품은 귀중한 二十여종의활성효소(活性酵素)가 全的으로 活動하야 병근원의뿌리를 속히 빼버리게만듭니다.



고질이된 만성위장병은 原因療法으로 고치자

머리가 늘무겁고 변통이 조치못하시며 배속이 거북하신 이는 흔히 일시적드는다고 위산(胃散) 건위제(健胃劑) 변비약 갓흔것을 사용하시나 이것은 먹을쌔만듯고 약만지내면 또다시 재발하며 더구나 인이백이거나 더욱 分量을 만히써야만 듯게됨으로 胃腸은몹시자극을밧게되야서 병세는 더욱 악화하게됨으로 반듯이 근본적으로 병근원을곳쳐주는「에비오스錠」으로 원인료법을하여주시기바람니다.「에비오스錠」은 고질이된속병에 더욱 신기한효과가잇습니다.

여름을타고 발육이좃치못한애에게



어린애들이 반찬투정 밥투정을하면서도 잘먹지안코 발육이조치못할쌔에는 신체는 점점 허약하야저서 병에걸니기쉬운것이니 이런쌔에는 매식후「에비오스錠」을연복식히시면 여름더위도 타지안코튼々히 무병하게자라나게됩니다 그외 만성위장병●소화불양●각기증●주체●배탈●해산전후의 쇠약증●氣不足●폐병●설사●셔체에 특효가 잇습니다.

ㅡ약 가ㅡ
七〇錠…五十錢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이잇습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東京·大阪 田邊商店

麥酒酵母 에비오스錠

三百餘戶住民無視 市街道路를掘鑿

我利만爲하고아무公告도업시 長津水電處事에不平

【長津】 장진강수전에서는 제이기언제공사용 사리석(砂利石)을 채취하노라고 해공사장미테 삼백여호주민이 거주하고잇는 상남면갈전시(上南面葛田市)중앙에 잇는 시가도로를 아모공고도업시 지난이십일부터 돌연히굴착하게되야 관계주민들은 주거와 교통에불편이 잇게되다해서 당국에 호소까지하여섯스나 아모효과도업고 여전히 굴착만하므로 전여시민들은 일대공포중에잇다고한다

성군은하면(洪城郡銀河面)에서 장질부사(腸窒扶斯)환자가 오명이나 발생되고 계속하야 삼십일에도 또발병되엿스며 보녕(保寧)등지에서 구명 대전(大田)자바 …는 사망자까지 나게되얏다 도에서는 위생과원을 급파하야 그예방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朝鮮人對抗 蹴球大會盛況

【四平街】 만주사평가에 재류하는 동포유지주최와 본보사평가지국후원하에 조선인축구단과 만인축구단과의 대항축구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팔일 오후일시부터 서공원(西公園)운동장에서 성대히거행하얏는데 우승의월계관은 조선인이 차지하엿다한다

慶北産組理事 一審대로求刑

【大邱】 경북산업조합사건에관한 피고 리상수(李相秀)외 네명은 업무방해(業務妨害)와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의혐의으로 일심에서 륙개월징역과 오십원벌금형을바든 피고등의공소공판은 이십구일 오후두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일호법정에서 정상(井上)재판장주심 강상(江上)검사의 간여미테 열리엇는데 피고다섯명은 불구속된채로 출정하엿스며 이사건은 각방면에 만흔충동을주고잇는관계로 방청석은산업조합의관계자로써 대만원을이루엇다 검사로부터 피고등에게 일심대로 구형이잇슨후 변호사손치은(孫致殷)씨는 피고등의무죄를 주장하는한편에 피고등은 조선산업운동의 제일선에서 조합을위하야 활약한 청년들인바 결코 악의에서 발동한것이 안흠에도 불고하고 경북도 당국자는 피고등이 보석된 그익일에 호출하야 사직까지 강요한 탈선적 고등정책을 여지업시 유바하자 장내공기는 일시긴장하엿다 판사로부터 판결을 칠월륙일로 발표하고 폐정하니 오후네시설분이엿다。

釜山消組不正事件 豫終、公判에廻附

橫領金額六千五百圓

【釜山】 소화십년팔월에 부산경찰서에서 검거한 부산소방조(釜山消防組)부정사건 범인동소방조 상비소조두(常備小組頭)산본언태랑(山本彦太郞)(三五)에관한 사긔업무횡령(詐欺業務橫領)피고사건은 그간부산지방법원 길천예심판사(吉川豫審判事)가 심리중이던바 지난이십구일 예심이종결되여 유죄로인정되여 공판에회부하야 사건발생이후 약일개년만에 사건의일단락을 보게되엇는데 그예심종결서에 낫타난범죄사실은 다음과갓다 피고는대정십일년 십이월일일부산 소방조상비 소조두에 피임되고 또동소방조의 물품급 금전관리의업무에 종사하게되엇슴을 긔화로소화이년 십이월이십칠일 부산에서 동소방조에 공급할 호ー쓰 륙십본 구입을 결정한것을 사십본만구입하고 남어지이십본은 동소방조에 잇는 호ー쓰를 구입한것처럼 부감독자에게 보이고 그대금 칠백팔십팔원사십전과 기타 동양의수단으로 칠회에 공하야 이천이백여원과 부내각회사 관청등 십이개소에 동소방조 소유호ー쓰약일천칠백이십원가량의 것을팔고 또기타부민의 긔부금 륙백팔십원등 합계륙천오백원을 사긔횡령한것이라한다

价川郡下의火災 一棟全燒

損害額은三千圓

【价川】 삼십일밤한시경에 개천군개천면군우리(軍隅里)동서양화점(東西洋靴店)에서 돌연출화하야 동가일동과 상품전부가 소진되엿는데 손해가 약삼천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전등을가려둔 종이(紙)가타서 모긔장에 인화되엇다하며 출동하엿던소방수세명은 부상하엿다한다

全東邊道 蹴球大會盛況

【山城鎭】 귀부동부산성진지국주최의 전만축구대회(全滿蹴球大會)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과하게되엿스나 여러 참가를신입한곳까지 잇섯슴으로 지난이십삼일 산성진 조선인 운동구락부와 공동주최로 전동변도축구대회를 개최하엿섯는데 정각전인 오전십시 회장 리상영(李相英)씨 사회로 입장식을 거행한후 참가칠팀으로 개회하엿섯는바 최후결승에 드러가서는 삼원포(三源浦)팀이 이대령으로참패하고 산성진운동구락부팀이우승하엿다한다

無名의"瘧疾"蚊

◇…大田附近高山에서發見 學界에波紋을이르켜

【大田】 세계학계에 아직알지못하든 무명의『마라리아』모귀(蚊)를 성대의학연구실(城大醫學硏究室) 산전학(山田學)씨가 대전(大田)교외 세천(細川)의 고산에서 발견하고 작년팔월부터 그연구에 몰두하고잇다 세계에잇는 일백이십종의 모귀가운대에서 보지못하든 조선산 모귀로서 중국의『하마다라』모귀와비슷한것으로서 빗은검고정충(精虫)압유충(幼虫)등이 전연다른모기와 달리 방금감염(感染)시험중이라는바 그결과가 완성되면 학계에 적지안흔 파문을이르키리라고한다

三湖鰮油肥組合 六回定期大會

【三湖】 함남삼호(三湖)에 잇는 삼호온유비 제조조합(鰮油肥製造組合)에서는 지난이십팔일제륙회 정기대회를 후월해수욕장(後越海水浴場)에서 회장 로인호(盧寅鎬)씨사회하에 개최하고 소화십년도 모든 경과보고와십일년도 예산을 통과한후 좌기와가티 임원선거와 결의가 잇섯스며 삼호시내에 집회장소가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만장일치 결의로서 약사천원의금액을 드려 회관건축을 결의하엿다고한다

組合長 徐仁[illegible]
監査 金炳[illegible] 徐鶴[illegible] 香椎源太郞
常務理事 金炳[illegible]

決議事項
一、賦課金 査定의件
一、會館建築의件
一、三湖築港積極的後援의件
一、規約改定의件
一、組合加入金의件
一、雇傭人賃金의件

地方人事

▲田村豫麿氏(警部)好仁警察署長被任人事次本報惠山支局來訪

▲大川修一氏(警部)惠山警察署警務主任) 赴任人事次本[illegible]訪

▲李[illegible]玉氏(漢城銀行平壤支店員) 延安支店轉勤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金[illegible]氏(九化金組理事)[illegible]人事次[illegible]支局來訪

忠南各郡에 染病猖獗

【大田】 요사이충남도내에 전염병이 성행하야 충남도위생과에서는 예방에분망중이라는바 흉

安岳地方旱騷深刻 移秧은大部分無望

其中에서도德成、貞禮兩里는 全面的으로荒地化

【安岳】 황해도안악지방에는 근일에 이르러서 보슬비가 이삼일은 계속햇스나 논에는 한등효과를 볼수업섯다 지금까지이앙의 현상을 조사해보건대 안악지방은 약사할가량이 되엿스나 신천군접경하류에는 심할전부가 이앙을못해서 농가에서는극도의 공포중에잇스며 덕성리정례리(德成里貞禮里)전부는 절망상태에 이르럿는데 그중에조곰식이앙을한것은 조수를리용하얏스나 그도 아프로 오륙일내 비가 오지안흐면 말나죽게되믈면치못하리라한다

早魃만은去益深刻 天水畓全部龜裂

移秧畓도全滅의危機

【永興】 하지가 이미지난 오날도 한발은 여전히 심각하야 농촌의 불안은 날로더욱 심하여간다 영흥지방은 수리시설이불완전한 관계상 천수답은 벌서 귀렬되고 이미이앙한 수전도고사하고잇다 전영흥에 이앙비례를보면 사할오분박게는 안되엿다고하며 농촌의 불안은 매우심각하여간다고한다

躍進淸津에또喜報 水産專門校設置

—問題漸次具體化—

【淸津】 국립수산시험장 북선분장(國立水産試驗場北鮮分場)은드되여 금년말부터 수산가공제조(水産加工製造)와 원양어업개발(遠洋漁業開發)을 위하야 활동하게되얏슴으로 북선수산계는 더한층 비약을약속하게되엿다 이와동시에 북조선 수산계의 유지들 사이에 청진에다가 수산전문학교(水産專門學校)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하여 문제가점차구체화되여가는데 이에대하야 관계측의 말을들으면 다음과갓다

수산전문학교설치는 북선수산계의긴급문제이다 북선의수산계는 어획방법(漁獲方法)이나 또는수산가공제조에잇서서 수산계의 첨단을거러가는모든것이 과학적으로되야잇슴으로 고급 기술자(高級技術者)를 필요로하게되는 고로 중등정도의수산학교로는어느방면으로보나 불충분하다 국립시험장이 과학적기능을 발휘하게되면 시험장과 전문학교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잇게되다 이문제는 죽내할부지사도 총독부에 열성을 다하여 절충중이므로 실현은 시간문제로 되여잇다고생각한다 우리들로서도 긔부금을 바더서라도 실현하고자 노력하겟다고 말하엿다한다

愛欲의彼岸 【39】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이바 칠모』

하고 부르랴고 할때에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렷다。

『앗불사 벌서 가는군』

하고 김장로는 도로 자리에 누엇다。

『남의 속두 모르구』

하고 김장로는 혼자 픽 우섯다 김장로의 머리ㅅ속에는 문임의 풍후한 몸이 보엿다。

아까 문임이가 김장로의 칠실인 사랑방을 홍치고 자리를 깔고 들어갈때에 김장로는 껴안고싶흔 충동을 느꼇다。그러나 참아 못하엿다。딸모양으로 아버지로 알고 마음 노코잇는 문임을 건드리기는 참으로 미안하엿다。그래서 문임이가 들어간 뒤에 김장로는 성경을한절보고 그리고 긔도를 올렷다 그리고 마음을 잡고 잠이 들엇던것이다。

그러다가 침모를 병원으로 보내라는 전화에 김장로의 욕심심지에는 다시 불이켜젓다。

『아모래두 마누라는 죽을것을』

하고 김장로의 느린 생각 바퀴가 돌기를 시작한다。

『문임을 정식으로 결혼만 하면 고만이지』

이러케도 생각해본다。

『돈을 좀 넉넉히 주지』

이러케도 생각해본다。

『혜련이 보기가 부끄럽지마는』

이러케도 생각해본다。

『문임이가 말을 들을까。젊은것이 이늙은것과』

이러케 생각하고는 김장로는 머리와 얼골을 만저본다。

『밥을 따라온 여학생도 잇거든』

이러케 전례도 생각해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문임을 내집으로 보내신것이 아닐까。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리치는것이 도로혀 죄가아닐까。』

이러케도 생각해본다。

『문임이도 내가 실치는 아니한 모양이야 퍽 친절하게 해주거든。허기야 나만한 사람이 조선에서 멧치나 되나？』

이러케도 생각해본다。실상김장로는 제가 무엇으로나 조선에서 몃재 안가는 인물로 알고잇다。교회에서도 목사를돌이고 내이고 하는 세력이 잇지아니하냐。교회안에 잇는 어느긔관에 그가 리사니、회계니하는 소임을 아니 가진데가 어듸잇나？서양 선교사들까지도교회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서는『미스터킴』이라하야 그의 말에 귀를 기울리고 그의 비위를맛추랴고 하지안는가？김장로는이에 대하야서 큰 자부심을 가진다。사실상 잇지도아니한 미듬과 점잔을 가지고 이만한 명성을 싸아올리는 데는 김장로의 고심은 여간 한것이 아니엇다。속에서 울어나지아니하는 행실을 꾸미기가 여간 힘드는 일인가。외길로 가는 인생생활도 힘이 들거든 하물며 두 길 생활이랴。김장로에게 잇서서는 인생이란 이러한 것이엇다。그는 제 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남들도—잘낫다는 사람들이며、인인 군자、인격자라는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한다。그럼으로 그는 아모도 숭배하는 사람이 업다。신앙이니 신념이니 하는것은 다 말하노라고 지어내인 말로 안다。그럼으로 그는 그의 아들이 난봉피우는것을 책망하지마는 기실은 속으로는 난봉을 피우더라도 것으로는 점잔치못한것을 책망하여서『어리석은 놈』이라고한다。

『천당은 어듸 잇고 지옥은 어듸 잇나？ 그것은 다 어리석은 무리들을 가르치자니 지어내인 소리』

김장로는 이러케 생각하기 때문에 김장로가 무서워하는것은 오직 감옥과 세상사람들의입이엇다。

비는 더욱 악수로 퍼부엇다 전차ㅅ소리도 자동차ㅅ소리도비ㅅ소리 때문에다 먹혀 버리고 오직 콸콸하는 비ㅅ소리 뿐이엇다。

김장로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낫다。

四十六年世傳
韓氏膏藥
종기엔 한씨고약
高根治速 韓氏膏藥
종기엔 한씨고약
手術安全 고약치료
韓氏膏藥
고뒤에 곰는되지를
한씨고약
世界의 高麗 韓氏膏藥
韓氏膏藥
項腫에
乳腫
에창등
김이불거리에
痔疾連珠瘡
一切外腫에特効
登錄商標
平壤·本舖
中城韓藥局
電話一四八七番 振替京城一〇〇七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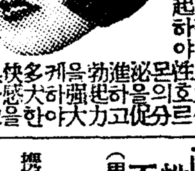
全店 中元贈答用品 大賣出
七月一日부터
交際上必要하신中元贈答品으로보내시는분과、바로서는분이、반드시 滿足하실百貨만을全店各部에豊富히準備하엿사오니今年도變치마시고「여러분의和信」으로下命하심을伏願하압나이다
□贈答用高級化粧品各種
□贈答用紳士、婦人、兒童用品
□贈答用貴金屬裝身品
□贈答用夏節衣裳衣各種
□贈答用夏節婦人、兒童服
□贈答用菓子類、酒類各種
和信商品券 (三圓以上發行) 사용하시기에簡便 바드시면滿足하실
景品附中元贈答用品 大賣出
七月一日부터十五日까지
特等에 金剛石入白金指環 一個
一等에 和信商品券(二十圓)一枚
二等以下五等까지空籤이無합니다
□中元贈答用으로最適品인左記商品을精選하와美粧進物箱入으로特別奉仕하압는景品付大賣出
◎和信特選食料品類
(賣出品目)
◎進物用麻와이샤쓰、노타이와이샤쓰、本綃넥타이、絹洋襪、베이비삭레스、進物箱入한카치ー프、그레프샤쓰、
◎高級化粧品、紙製漆器、菓子、罐
◎高級찻트코ー스、커피셋트
안서보니賬品、罐詰
菓子類各種
◇現金二圓買上에景品引換券一枚進呈
◇現金五十錢買上에補助券一枚進呈
京城 和信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獎
最新發明局○塗布藥
セープレピン (세ー부례핀)
●本劑는、芳香性크ー림狀으로서局○에少量식塗布함으로爽快한充血을惹起하야 性호르몬의分泌를促하고 勃起力을强大하게하야 多大의快感을興奮케하고 生殖機能을强케한다、奏效急速한最新發明藥이다。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男女共用)一回二瓦程度塗布
(價格) 二〇瓦入二圓五十錢 五〇瓦入四圓五十錢 百瓦入七圓八十錢 携帶用十本入三圓送料四十二錢
發賣元 東京市青山二丁目電停前 合資會社 天醫堂 振替東京一九二四番
●說明書實驗報告無代進呈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平壤大和町 森田藥房 釜山辨天町二丁目 大黑南海堂 新京三笠町 宮崎藥房 大連浪速町 日本國藥會社 藤田藥房

三好粉白粉
朝鮮 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補精强壯劑
眞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局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即時보내드리겟슴니다
釜山府草梁町三二二一 大洋貿易社 電話二二一九 振替釜山七九二二



南京虫에 アース
本社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리차ー드·뽀레스라부스키監督 로ー렌스티뻬트主演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빅터赤盤藝術家로稀育메추로포리탄劇場顧問빼리톤·三十五年度世界오페라歌手의랑킨스第一位獲得한티뻬트가마음것銀幕을뒤흔들면서萬雷의拍手에싸인待望의最高音樂映畵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天才少女쩬·원서朝鮮에데뷰!!
나는우리동니재롱꺼리 (Ginger)
兒童映畵의넘버원、自然的絶讚下에只今떠흘의人氣와못지안은新進天才의登場!!눈물과수승의交錯!!
◆日活超特作映畵
縁の地平線 前篇
一(次週封切)(三日)一
오페라、레뷰、무지꼬라운드、멜롬의愛戀者、로맨스敵女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東劇座公演第五週
金鍵…作
光明을일흔사람들 全二幕
光明을일흔地下村의人間들!그들은그네들의環境에서永遠히버서나지못하엿다!그러나그들은단지하나의幸福함을지니엇섯스나그들은무엇을취하엿나?이것을우리들의이야기려가리라고잇다
出演 卞基鍾、李敬煥、宋海天、河芝滿、徐玉石 金英淑其他總出演
周峰越…作
不具의안해 一幕一場
한사나히를사고도는두계집의사랑의싸홈!名譽와富貴를超越한純眞한人情과사랑앞에서는모든것이굴복할것이며미럼으로써만이快活한삶을누릴수잇는것이다
洛山學人…人
貧富의境遇 全一幕
누구나갓치貧困한가운데通情도하고同情도한다그러나한쪽이가난하고한쪽이富할때에는잇든情도업서지고업든心情이절로나는것이人間의本性이어니라하거든애정에뭇겟다고엇고純粹한人間의性品이나라나는
西大門町 電光3 三一二番
東洋劇場

七日一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米國마스콧트社超特作全發聲連續篇
巨匠알만드시에파ー氏大作
流線怪盜列車
最終解決篇八卷上映
雄風兒존우엔氏決死의主演 사ー례ー그레이孃助演
◇콜넘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모던騎士道
監督 데이·카ー넨드氏 主演 죠ー지·라우드氏
禁酒法廢에서失業한깽크는무엇을目錄하나?捨鉢한掠奪일까?美事한人生轉換일까?이것은血에빗나는깽크에고메데이·메로드라마다
大都映畵社超特作連續篇
時代劇 疾風蜘蛛鞘 快捕[illegible]平次篇
監督…白井戰太郞 主演…近衛十四郞 特別出演…水島道太郞
次週=久遠의寮=疾風蜘蛛鞘中篇=無軍非常線
麻浦桃花町 電龍二三番
桃花劇場

朝鮮米穀商解剖

一、米運賃協定問題는
一面生產者搾取目標

●……中 泰 鎭

米運賃問題가 한참 曲折을 거듭하여왔고 또는 앞으로 一層의 多難을 앞두고잇는만큼 그解決如何에 對하야 가장 注目지안흘수가 업는터이다 이 事件하야 朝鮮內米穀商의 側上에도 暗影과 脅威가 加함이 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所謂 米運賃協定을 云謂하는 이때를 機로하야가지고 朝鮮米穀商을 싸고도는 諸問題를 解剖하는 同時에 그들의 動向을 考察할 必要가 잇다。

×

먼저 지난 六月廿九日에 成立되엇다고 하는「米運賃協定」이란것은 大體 무엇인가 함을 살펴보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에잇서서 米運賃協定은 어떠한 內容으로 되엇으며 또는 누구를 爲하라는곳에 그目標를 두것인가하는點을 밝히는 곳에 그正體를 엿볼수잇게된다 그래서 오늘의 米運賃協定에對하야 말하기前에 이協定을 보게된 動機로부터 簡單히 더듬어보게되면 元來이協定의 動機은 表面、裏面의事情이 잇는바 即表面的理由는 다음과가튼 두가지의點이잇다 첫재 日本內地의 食糧問題를 解決케하라는 事情으로 米增殖計畫과 倂行하야 조선쌀의 日本內地移出이 急進的으로 늘거짐을 따라서 이것은 거의全部가 朝鮮內米穀商의손을 거치게됨은 當然한結果이다 그러고 移出米에잇서는 地理上關係로 모두船便에 依치안흘수가 업게되야 自然 朝鮮內米穀商과 汽船會社는 不可分의關係를 맷고말엇다。

×

둘재 이와가티 兩者가 不可分의關係를 매진 一面에잇서는 그들의利害關係는 恒常相反되지안흘수가 업섯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日本內地로 나아가는 조선쌀의輸送에對한 運賃을 米穀商이 내여노면 汽船會社는 이것을 밧고 그代價으로目的地까지 運搬하여주는 것이니만큼 만약 運賃의高率이라면 米穀商의不利를 招來하는것이며 이것과 反對로 運賃低率의境遇에는 汽船會社가 不利케될수잇는대로 말하는것이다 그래서 汽船會社로서는 運賃을 노피라고 하며 또는 米穀商은 運賃을 나초라는 곳에 兩者의 利害의 衝突이 생기고말엇다 이때문에 運賃問題로 兩者의 衝突이 繼續되어왓다。

×

그러나 單純히 以上의 事情만이 그動機이엇다고 볼수는 업다 이곳에는 表面에 흘러나오지 안는 事情外에 看過할수업는 重要的事情이 잇섯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以上과가튼 所謂公平 또는 統一된 運賃協定을 하라는 主張을 든것만으로 하지 안코 이로써 兩者가 서로 各各 有利한 條件을 세우고 共同步調를 取하고 이反面에 米生產者는 不利之間에 搾取를 當하고 말게되엿다 即米穀商과 汽船會社間에 運賃協定에 꼿첫다고하면 이에對하야 다시 다른問題가 생길 餘地가 업지만 다시 이運賃協定을 好機로 하여가지고 그協定에 參加한 汽船會社 米穀商은 獨占的 條件을 하여 즐겨이란 米穀商이 應케되고 또一面으로 汽船會社는 그 條件의 代償으로 米穀商에 運賃에對한 所謂 割戾를 하게되니 一割以上 高率의返金을 내노키로한 條件을 提供하엿다。

×

그러나 이와가티 汽船會社가 高率의 割戾金을 내노케되것은 다만 獨占的條件에 對한 代價으로 에 안두고 내노는것이 아니고 하면 이것은 決코 그런것이아니다 汽船會社도 營利를 目的하는 會社이므로 一割以上의 割戾를 運賃中에서 떼여줄수는 업는것으로 結局 이것은 汽船會社에서 그割戾金을 運賃에 加算하여놋코 다시그中에서 米穀商에게 自己들의運賃中에서 내여노흔듯시 한것이 불과한다 그러고 米穀商은 生產者로부터 쌀을 사들일때에 割戾金加算의 運賃을 計算에 너흐게되다 그러므로 結局에는 割戾金加算의 運賃協定으로 생긴 割戾金을 주고 밧는 것은 生產者를 搾取하는 不當利得의 數字가 되고마는 것이다。

—(續)—

全朝鮮金組貸出 一億九千萬圓

金組、漁組、水組等의技能擴大로
五月末現在新記錄

庶民金融機關으로서 發展著命을 가진 金融組合은 產業組合 水產漁業組合等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去益 그機能이 擴大되는터인데 月前 貸出限度를 擴張함에잇서서 五月末現在 全朝鮮金融組合의 總貸出高는 一億八千九百七萬八千圓으로서 新記錄을 示하얏다고한다 이에 金組의 預金貸出高를 前月과 前年同月과 比較한것을 보면 따음과갓다 (以下單位千金)

	五月末	比前月	比前年同月
預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金融萎縮

全朝鮮金融機關總額
◇……預金貸出各減少

五月末現在 全朝鮮金融機關의 預金總額은 六億七千百六十四萬六千圓、貸出總額은 十億一千六百七十六萬三千圓으로서 前月末에 比하면 預金은 三百五萬五千圓 貸出은 九百九十萬三千圓의各減少로서 低金利時代에 도리어 金融이 萎縮되것이 注目되는바 各業別 六月末現在 預貸狀況은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預金	貸出
特銀	[illegible]	[illegible]
普銀	[illegible]	[illegible]
貯銀	[illegible]	[illegible]
信託	[illegible]	[illegible]
金組	[illegible]	[illegible]
郵貯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前月比較	[illegible]	[illegible]

上半期各銀行의 業績은一般良好

低利이나計數增大로

地元各銀行上期決算은 六月三十日로서 막음하고 今月下旬의 定時總會에 附議承認을 求하기로되엇는데 上期業績은 各行이 모다 前期에 繼續된 低金利의 進行에다가 期末의預金利下에依하야 貸出金利의 低下가促進되어 利鞘收益이 相當히 減少하얏스나 一方預金의 大勢는漸增傾向이오 利下도크게 反響되지안은一方貸出도 인푸레金에依하야 顯著히 그計數가增大되어 結局金利의低下 預金貸出의 計數增加에依하야 充分히 充當하얏다 特筆할것은不動產其他의 顯著한 値上에依하야 固定資產의資金化에依한運用增大로 이것은銀行의資金內容을好化하는 同時에決算面을非常히조케하얏다 그리하야各銀行의 收益은一般으로 前期보다 多少良好하야 모다利金을 諸鎖却에 充當하고 配當은 据置할 方針으로 堅實한 決算을 示코잇다한다

銀行會社決算

▲朝鮮銀行=各支店의 報告未着으로 不明이나 朝鮮內의 預金貸出共히 增加、滿洲國關係도 朝鮮銀行券의 撤收가 漸次行하고잇슴에 不拘코 一般銀行業務는 大體前期와 不變이며 또地金賣入價格에 依하야 地金의 持込이 激增하야 그實質는 增大되바 特融關係로 配當은 前期同樣四分으로 据置하고諸鎖却에 注力할 方針이라는데 總會는八月十四日頃豫定

▲殖產銀行=新株拂込以來 營業의 積極化 即 商業金融의擴充 一方長期貸方面은 新規旣往의 兩利下에依하야 利息收入이 減少하얏스나 一方不動產의 値上에 依하야 回收成績이 良好하고 貸出計數도 增大하야 結局公表利益은 百八十六萬八千百三十二圓으로 前期보다 十萬圓을增加하얏다 이는 新株拂込關係에 依한것으로 純益率은 前期와 大差업고 配當九分据置는 確實하며 總會는 八月十五日頃豫定

▲商業銀行=期末預金五千二萬五千圓(前年同期에比하야 七百九十八萬九千圓增)貸出은 五千六百五十五萬三千圓(前年同期에比하야 四百五十八萬圓增)으로 모다創立以來의 新記錄을示하고 結局公表利益은 前期와大差업시 十六萬八千七百二十七圓이엇는바 利益은 滯貸其他諸鎖却에 充當하고 配當은三分据置方針、總會는二十五、六日頃豫定

▲漢城銀行=期末預金은 二千七百二十二萬三千圓으로 前期末에比하야五十六萬圓減少、貸出은三千四百七十七萬三千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七十七萬一千圓의 增加로서 結局公表利益은 八萬七千四圓(前期에比하야 一千三百九十圓增加)이어다 配當은三分据置方針總會는 廿五日頃豫定

▲東一銀行=期末預金은 一千七百卅四萬五千圓으로 前期末보다 百九十八萬九千圓의增加 貸出은 一千八百九十四萬七千圓으로 二百五十一萬三千圓의 增加이며 結局公表利益은 前期보다 約六千圓이增加하얏다 配當은三分据置方針 總會는 三日頃豫定

▲海東銀行=上期利益二萬一千百九十六圓으로 前期繰越一萬四百十七圓 合計利益四萬二千六百十四圓의增加 配當은四分据置方針總會는廿日頃豫定

▲貯蓄銀行=損益計算은如左하다

(單位圓)

當期總利益金	[illegible]
當期總損失金	[illegible]
差引純利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으로 前期利益金보다 約一萬圓의 增加이데 配當은 八分据置方針、總會는 二十五日豫定

▲京城電氣=京城電氣會社에서는 六月末로써 上半期業績을 끗내엇는데 電氣、瓦斯、電車總收入은 五百萬圓 近處이며 電氣料金은 値下로因한 收益減을 完全히 補充되엇는데 配當은 前期와 가티 一割配當据置의 方針으로 二十七日頃 定期總會를 東京에서 열豫定이라고

▲朝鮮火災=六月三十日로서 上半期決算을 끗내엇는데 上半期業績은 大體順調로 七分配當据置는 不變할모양인데 總會는 八月二十一日頃에 될모양이라고

▲朝鮮製鍊=朝鮮製鍊會社에서는 六月末上半期決算을 끗내여 目下 淸算中인데 製鍊所勘定、鑛山勘定等 複雜하야 그數字計數가 分明케되는 中旬에 드러갈터인데 株主總會는 七月三十日 열니豫定이다 그러고 當期는 一千餘萬圓의 繰越缺損으로되야 右赤字를補塡할程度로 結局 無配當을繼續할모양이라고

全朝鮮移秧狀況

六月末六割一分
例年보다二割未及

今年農形의 大半을左右한 移秧의 移秧狀況에 對하야 總督府農務局에서 六月末日 現在로 調査한바에의하면 去般降雨도 六割一分을 畢하엿다 例年에依하면 六月末日까지에 八割은 畢하여야하는것임으로 今年은 大端히 늦저서 年形은相當히 憂慮되는터이다 幸히 昨今도 雨期中이어서 方今 移秧이成行될으로 多少回復될듯도하다고 農林當局은 큰念慮는 업스리라고보나 大體로 今年年形은 放心할수업는것은 事實이다

今年米移出

千萬石接近說

今年產의 朝鮮米輸出는 當初에 一、日本內地의 下品米壓迫으로 比較的高價의 朝鮮米는 不賣를 繼續한일 一、輸出의 對滿販路가 全然梗塞한일 等의事情으로 輸移出不振이 憂慮되든바 變實期인 五月以後移出은 活況을 呈하야 六月末의累計七百八十萬六千石으로 前年보다 三十三萬石의移出增加인데 最近의 產地狀況에 依하면 今年의 移出은 過去의 最高記錄인 昭和九年의 九百五十萬石을 突破하야 一千萬石의 肉迫할것으로 豫想되다 即今後 四個月에 昨年移出實績을보면 百五十一萬石인데 今年은 產地在米量에依하야 今後各月平均五十萬石移出은 確實視되므로 結局九百八十萬石가량의 輸移出에 達하리라 고한다

粟輸入의 數量激增

細民食糧乏現象

六月中의朝鮮의 米粟의移動狀況을 보면 朝鮮米는 數個月來로 移出이 激增하야 六月中에도 移出七十四萬二千七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여 二十萬二千餘石이나 移出增을보아 昨年十一月以後累計로는 七百七十七萬三千三百石으로 前年보다 四十七萬二千餘石의 移出增을보고잇는 한便에 米價高에依한 細民食糧不足은 益甚하여 六月中滿洲粟의 輸入은 十五萬九千四百十二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倍에갓가운 八萬二千餘石의 輸入增을 보앗고 昨年十一月以後의 累計로보아도 九十六萬二千九百九十五石으로 十三萬八千餘石의 輸入增을보고잇다 이것으로보아 去般의降雨로 또 米價의 大幅引下를보지못한 以上 細民食糧을爲하야 滿粟輸入關稅의 全廢또는 最大限度의 緩和는 더욱緊急한것이證明되고잇다

朝鮮白米 不賣에抗議

穀聯에서打電

大阪穀物同業組合의 朝鮮白米不賣決議는 朝鮮米의 合理的發展을 狙害하는것이라하야 各地當業者間에서 對策을 考究中인데 穀物聯合會에서는 三十日附抗議를 打電하고 同組合의反省을求키로되엇다

專賣十五週年

一日記念式擧行

專賣創業十五周年記念式은 一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府民館에서 開催하야 來賓約三百名 職員約四百名 計七百名出席으로 盛大히 擧行한바 專賣事業功勞者表彰狀授與가잇고 同十時二十分閉式後 直時 專賣事業殉職者慰靈祭를擧行하고 正午中講堂에서

重要商品界事情

고무市勢

目前、大勢觀

六月初로부터 고무市勢는積極性이 적고 最近法貨의恢復과 한가지로 多少 恢復되傾向이 보혓다。그러나 아직도 保勢圈을 버서나기가 어려우며 米國의消費 四月의五萬一千九百噸을 最高로 벗서 줄어지는터이며 또 現行四割의 制限率이 七月로부터 三割五分로 緩和될事情이 잇서 이것이 人氣的으로 影響되므로 目前의市況도 아직 不透明을 免치못할것이다

×

그런데 米國의 消費減은季節的으로 그러지 不安視할것이아니며 또 生產指數等 環境事情을 綜合하면 季節的消費減도 例年보다는 相當히 輕케될것으로 보히고 限產緩和도 充分히 業界의實情에 빗처서 되고잇는만큼 이로因하야 在荷를 增加케할 念慮가 업슬것임으로 가령 當面한市況에 低迷를 繼續하드래도 大勢的으로는 조곰도 不安이엄다고 볼수잇다 더구나 英國在荷가 四月以來 漸次 줄어지는터이므로 이것이고무市勢上에 反響을 주게되지안흘가 함이 지금에잇서서 注目할 點이다。

株式會社柳韓洋行

六月廿八日創立總會

(高陽郡 記念式場)

柳韓洋行을 株式會社로 하기爲하야 六月廿八日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七番地 柳韓洋行內에서 創立總會를열고 定款承認、資本金五十萬圓(全額拂込)全部發起人引受 拂込其他를 可決하엿는데 代表取締役은 柳一韓氏가 選任되엇다고

取引停止

(六月三十日) 京城

府黃金町二丁目一二九番地 正春鎬二郎 ▲住宅地分讓 京城府古市町京城驛前 서울빌딩 第十一號 稻葉顯習

○ 金組의 貸出은 新記錄으로 膨脹

○ 表面으로 보면 庶民金融이 徹底해잔것이오 裏面으로보면 白衣人의 負債增大

○ 水產業도 資本化傾向 濃厚

○ 이것 저것 大資本化、統制、擴張

○ 數字로보는 朝鮮은 果然 젊어 目에 値하나 이통에 쪼기어 나는者 누구?

株式

朝新高外 低落

商況(一日)

前場保合 新甫도閑議形勢傍觀으로 凡調에推移하야 無味乾燥閑散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朝新五十錢高인 三十圓八十錢 東新二十錢高인 百二十八圓八十錢 日產十錢低인 六十九圓八十錢에各大引되고 鐘新五十錢高인 百五十八圓丁 北紙二十三圓五十錢 朝石十九圓丁各一本이잇섯다

後場區區 朝新은 三十一圓五十錢에올느고 東新은 百二十七圓五十錢 日產六十九圓四十錢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金融이 一般으로 緩慢化하다고보이나 目前國策의 决定이 미루어지고잇어 …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電氣化學 ▲北樺太鑛業 ▲東滿製糖 ▲東拓 (合計三百枚)

朝新의獨强性

前途高를暗示

前月中의 朝取米豆部의 賣買石數는 全國最高의 記錄을지은셈이다 만헛고 今後도 天災期가아페잇는만큼 米界波瀾이 豫想됨을 딸어 米豆部의 業績은크게樂觀되는一面 證券部도閑散하다고는하나 例年보다別로 不況이것도아니임으로 今期朝取全體의 業績은 增收를期할수잇슬뿐이다 全國一齊取引所가 將來約束되어잇는만큼 朝鮮內에서는 當然히京城一個所即 朝取獨占으로 되기가 十常八九인點을 根據로삼는買思惑도 樹立할수 잇슬것잣다 그럼으로 仕手의 出動만잇스면 朝新은 相當한 活躍을期할수잇슬 모양인데 昨今은 株界全般이 增稅、統制에 掛念하야 低迷인때문에 朝新獨特活躍을 阻止코잇는바 그래도 今前場은 三十圓八十錢에 獨高를示하야 前途高를 暗示하얏다

新甫無味乾燥

閑議形勢重視

新甫는 三日의 閣議를앞두고 國策의 代議가 여기에 決定되는 …

新甫百五十七圓五十錢 大新六十九圓六十錢에 …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叺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一斤	[illegible]

◆株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甲五分利 一〇一、三〇 ▲二四分利 一〇一、四〇 ▲佛貨四分利 一九八、四〇

▲北濱情報 【大阪電話】目前國策會議 警戒로不氣迷이나 日來의大勢는 …

米期 逆下鞘로 發會

前場頭重 今朝阪地는 中限三十四圓丁인 三十三圓八十七錢 新甫 九月限은 三十三圓八十七錢 十三丁下鞘로 發會되고 當地는當限三十一圓七十二錢인 十五丁低로 中限은 三十一圓七十九錢인 十七丁低로 新甫九月限은 三十一圓七十錢인 九丁下鞘로 發會되엿다가 阪地九十八錢까지 返戾하였다가 九十錢으로 九十二錢에 止場한後 阪地九十八錢까지 返戾하였다가

後場不變 後場은 三十一圓七十四錢까지 下押하여다가 七十六錢에 場을 止하엿다 七十七錢에 一丁高로 當場은 七十六、七錢間細刻으로 七十八錢에 止場하다

九限下鞘發會

前途低를暗示?

薄上鞘로 發會될것으로 豫想하엿든 新甫九月限은 中限十七丁反落과 相俟하야 九丁逆下鞘로 發會되엿다 此下鞘의 發會가 前途低落을 暗示하엿다는 모을이다 大體米界의 情勢를 綜合하여 보면 客月中의 大限三十二圓七十錢은 最高公定米價의 接近으로 暴悍의 强派로도 利食을 急히하야 警戒自重하여 왓슴으로야 그以上의 高價는 容易하지 못할것도갓다 아즉도天災期가 遼遠한今日에잇서서 三十二圓七十錢을 天井으로보는것은 疑問에付치안흘수업스나 그러나梅雨의歎을呈하든 日本內地는 昨今雨天으로 到處樂觀을 呈하고 旱地朝鮮도 中部以北을 除한外는 擧皆雨量이 潤澤할뿐이나라 昨今의天候가 雨期에入한 形態가엽지아니한즉 아프로 雨量만 充分하면 足히 移秧을完了할수잇고 딸아서 靑田賣를 告하게되는때는 賣惜農家의 恐怖的賣物도 업지안흘 것이다

中限戰의今後

그決戰이注目

中限의取組는 表面上六、九萬石에 不過하나 其實質中의 石高石은 無難하며 又는 仕手의 數를 綜合하면 적어도 六、七萬石은 될것이다 實方主力側인 金太의 獨占買로 其他店은 全部 賣占買으로 그裏面의 對峙를보면 結局 來客의 綜賃化와 地場의 實質成으로 可謂 主客의 싸홈이 展開될모양이다 그러므로 압흐로 中限戰은 當先限보다 又一層 興味가 津津할모양인데 今後 天氣가 旱魃을 繼續한다면 仕手의 關係도 問題化할條件가업슬것이나 그러나 時期遲延이나마 植付를 完了하고 딸아서 靑田賣의 謳歌를 묘하는때는 產地의 賣惜米가압흘 다로와 出廻되지안흘가하며 此를機로한 地場側은 一擧에買陣을 崩落시키지안흘가한다 그럼으로不遠한 將來에 中限戰의 一大決戰으로大壯觀을 呈하게될것이다

堂島期米堅調

【大阪電話】新甫는 一般豫想대로 下鞘發會이엇스나 金利、倉數等을 考慮하면 實質的으로는 大下鞘인셈이만큼 突込賣警戒로 一方高價買物不添이오 無材料로 活氣업시 賣買稀少이나마 中限에는 賣驚側의二萬石賣、어에地場總買人氣로 殷賑이고 一般天候의推移를 注視하야 積極的 職意가 乏하얏다

實方=東京側、中東側、地場、朝鮮側、馬越

買方、地場强氣、地場乘換、海堀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弱含

雙方共히形勢傍觀임에不拘코 依然 取引이積極味를 缺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五十錢

仁川少弱

依然移出精米側共히傍觀하야 買氣가 極히적고 實物로서는 繫外米가 入하는程度이엇다 氣配五錢低인 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 十三圓四十錢

釜山閑散

與地出廻가적어 …

大邱不變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八錢

群山不變

今朝來의降雨가 잇서 實物가 依然 到來치안코 新甫의 無活氣를 듯고 十錢低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五錢

木浦反落

昨日來의降雨로 移秧不安全이 全히解消되어 人氣緩和되고 唱은 二十錢反落이나 아즉 積極的으로賣物은 업섯다 丸木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十三圓

株名	賣定	日步	代引
◆實定代引日步◆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七〇一〇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	[illegible]
鮮銀	[illegible]
殖銀	[illegible]
滿鐵	[illegible]
東拓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東亞新	[illegible]

◆朝取短期◆ (株式一日)	前引	後引	高値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長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前引	後引
東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株 東益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光皿

◆朝取期米◆ (一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 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値段)◆ 日本米上 [illegible] 朝鮮米上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 [illegible] 朝鮮 [illegible] 台灣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ノ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前場	後場
神戶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金融(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純金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一日)

◆京城絲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大豆粕期賣◆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一日

◆大阪絲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市場漫感

(株)……新甫도平凡、東新은依然히 떠러진채 低迷일뿐 ▲株界의大勢를 決할것은 三日의 國策審議閣議 ▲이閣議에서果然 增稅의程度가 判明될가? ▲十日以後로 질질끈다면 夏枯로 팔을쳣치나 안흘지? ▲目前東京東新百二十七圓五十錢으로下支되기는 한모양인데 위는 기껏해야百三十圓밧게보지 안는모양 ▲朝新은 다시머리를든다 株界의上下分岐를압두고 獨高도至難 ▲增稅二億圓程度라면 東新도一爆發 朝新도熱狂의場面이잇스런만은……

(米)……新甫九月限은當然히二三十丁上鞘로 發會될것이엇다 反히九丁逆下鞘로 發會되엿다▲昨年同期에는 九丁下鞘、今年도 七丁下鞘、그原因을 알수업는걸 ▲昨年은 下鞘發會後大反撥을示하엿슴에反하야今年의形勢는 反落하기가 十常八九▲中限의取組가 複雜의石數를綜合하야 적어도 六、七十萬石이되는모양이오 또地場의 大部分賣成을 하고잇는關係上 中限戰의 勝負야말로 大壯觀을呈할모양 果然? 雨?